



권 시장 “역세권 개발, 원도심 활성화 · 도시재생으로 이어져야” 강조

## “대전역 활용 소규모 회의산업 활성화”

권선택 시장은 27일 오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예정된 대전역 동광장 일대에서 시정현안 현장점검 회의를 갖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회의에는 박희원

### 철도종사자 음주 · 약물단속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공사현장 감독)의 음주 · 약물 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대는 ‘철도인전법’ 제41조에 따라 열차 탈선, 충돌 · 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철도종사자 음주 · 약물 사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철도경찰대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 · 약물단속은 ‘음주 · 약물 복용 확인 · 검사 업무지침’에 따라 경찰청의 음주 · 약물단속과 유사한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음주단속은 흡흡기 측정으로 시행하고, 필요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약물복용 검사는 철도사고가 발생하거나, 약물복용의 의심이 있을 경우 단속 장비로 측정을 하고 양성반응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의뢰하고 있다.

철도경찰대는 음주 · 약물단속 장비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 6개월마다 국가공인기관의 검정과 교정을 받고 있다.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측정시 양성반응이나 올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처분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우선 철도종사자의 운전면허취소 · 효력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별로 세 분화(0.03%~0.06%~0.09%이상)하고, 처분기준도 강화 할 계획이다.

철도사고 뿐만 아니라 철도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음주 · 약물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성욱 개발위원회 회장, 박재복 시민행복위원장, 이세영 명예시장, 정용길 정책자문위원, 박천보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권 시장은 1920~1930년대에 조성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철도문화 유산(철도보급창고, 관사촌 등 근대 문화유산 30여점 포함)을 간직하고 있는 대전역 인근 철도 관사촌을 직접 둘러보고 복원계획을 점검했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망대에 올라 역세권개발사업과 국립철

도박물관 유치, 주거환경개선사업,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권 시장은 “철도박물관을 대전에 유치하고 대전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면 이 일대는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전역에서 중앙로와 옛 충남도청, 보문산으로 이어지는 원도심이 활성화되면 이는 곧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도 중요하다”며 “역 주변이 소규모 회의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활성화시키고 역사를 통해 인구를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내년부터는 위성도시로 옮겨가는 수도권의 젊은 층을 대전 역세권 주변으로 유입시키는 운동을 할 계획”이라며 “역세권 개발이 단순한 환경개선을 넘어 인구유입과 경제 활성화 등 도시재생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 공주 알리기에 박찬호 · 박세리 나선다

### 제61회 백제문화제 성공 개최 ‘흥보대사’ 위촉

공주가 낳은 세계적인 스포츠스타 코리안 특급 박찬호(42)선수와 골프여제 박세리(38) 선수가 제61회 백제문화제와 세계유산을 품은 흥미진진 공주시를 널리 알릴 공주시 흥보대사로 위촉됐다.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27일 오전 10시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시덕 공주시장과 관내 기관·단체장, 모교 출신 학생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와 골프 여제 박세리 선수를 공주시 흥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흥보대사로 위촉된 박찬호, 박세리 선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기진 세계적인 역사도시에서 배우고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고향 공주시가 세계인들에게 주목받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돋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세리 선수는 “백제문화제에 알리면서 제61회 백제문화

제가 성공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흥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백제문화제가 환갑을 맞아 세계로 도약하는 역사문화축제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두 명의 세계적인 스포츠스타가 함께 하게 돼 백제문화제의 흥보와 관객 여러분에게 큰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찬호 선수는 이날 위촉식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기진 세계적인 역사도시에서 배우고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고향 공주시가 세계인들에게 주목받는 행정된다.

특히 올해는 백제역 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맞물려 새롭고 예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들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광객들의 이목을 받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제는 15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명실 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알고 있다”며, “환갑을 맞은 백제문화제가 친환경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흥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1회 백제문화제는 오는 9월 2일 공주시 금강신관공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9일간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 백제,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백제역 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맞물려 새롭고 예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들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광객들의 이목을 받고 있다.



## 세종시 공사현장 관리감독 ‘엄망’

### 토시운반 차량 적재량 초과등도로파손 · 비산먼지 우려

세종시의 아파트나 대형 상가 건물 신축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공무원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제때에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 및 도로파손이 예상돼 감독관청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공사현장의 민원 차량이나 토사운반차량들의 지도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일부 공사현장에는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세척하는 세륜시설도 없이 형식적으로 흙을 싣고 나르는가 하면 덤프트럭의 바퀴에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고 심지어 일부 현장에서는 세륜시설을 설치해놓고도 바쁘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토사운반 차량이 적재량을 초과해 운반함으로서 도로파손과 비산먼지발생 및 안전사고의 우려, 과다적재로 남의 일자리를 가로채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종시청에 지난 5월 16일(3~3 경남 기업), 6월 3일(2~4A 한동건설), 6월 5일(2~4A 파크종합건설) 세 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신문고에 고발한 상태이며 시청 주변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단속을 요구한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다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건설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도 아

니다”라고 귀띔했다.

지난 주 목요일에는 세종시청 사장의 피크종합건설현장의 최상층에서 마감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상황이 본보기자의 눈에 띠어 카메라에 담겼다. <본보도>

또한 스마트하브 공사현장에서는 인도양쪽에 자재와 장비를 적재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도로에 설치해 버젓이 사용하는 배짱까지 보여 바로 앞에 있는 세종시의 공권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세종시가 공사현장 단속을 게을리하거나 불법공사현장의 단속을 외면하지 않고서는 시청 앞에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고개를 가우뚱했다.

공사현장이 많은 관계로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은 이해가 있지만 세종시민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인도를 피해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불건에 걸려서 넘어지는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세종시청 담당공무원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므로 불법공사현장의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정환기자

정부 3.0

“내 나이에 아들 땅이 생겼습니다.”

“저세상을 다듬어 내 아들까지 잘 펴아려주니 광 흥복입니다.”

“자식들도 광기 힘든 일을 따뜻한 속길로 보살펴 주시니 저마다 든든합니다.”

“국내외인장기요양” 서비스까지 있으니 광 힘이 도와요.”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모시려고 노인기요양을 찾았더니 당신의 아들 땅이 됩니다.”

대한민국 이르신이 행복할 때 까지 당신의 아들 땅이 되는 **효나누미**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더 많은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혜택

- 재가입: 방문으로 방문금액, 주거간보증, 단기보호 서비스
- 현금급여: 도서 택시 기부 등 정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월 15만원 지급
- 시설급여: 시설하여 서비스

급여이용 본인부담

- 방문대금지: 시장20%, 재기 15%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면제
- 보험급여금급여 및 강경대상자: 50% 경감사실: 10%, 재기: 7.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격려사

# "21세기 성장엔진은 바로 창조경제 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난관을 극복하고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21세기 국가경제의 성장엔진은 바로 창조경제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17개 혁신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서 혁신센터의 크고 작은 성과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멘트가 돼서 대한 민국전역에 창조경제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우리나라가 21세기형 창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만 할 핵심 과제"라며 "정부는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우리 경제의 항구적인 혁신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뉴딜정책처럼 한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저성장의 한계를 극복한 성공적인 경제혁신 패러다임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돼서 지역별 산업별로 구축된 혁신생태계의 토양위에서 성공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든든한 도약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에 대해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아이디어와 기술, 자본 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살아 움직이는 창업 장터가 돼야 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 준비자들에게 그곳에 가면 내 아이디어와 기술이 잘 팔리고 내가 찾는 기술과 사업 아이템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하여 한다"며 "혁신센터가 중심이 돼서 지역별 산업별로 구축된 혁신생태계의 토양위에서 성공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든든한 도약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센터에서는 센터마다 고용준을 설치해 원스톱으로 청년 고용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고용디딤돌 등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는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지역의 기술인재 풀을 만들고 혁신센터가 가지고 있는 대·중소기업 네트워크와 연계해 기술인들의 경력 발전과 재교육·재취업

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7~28일 열리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페스티벌'은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가 마무리되면서 전국적인 창업 붐 확산과 성과창출 분석회를 위해 마련된 행사다.

혁신센터 보육기업 성과전시 및 투자자 연계(데모데이), 컨퍼런스,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 문화공연(K-POP, 인디밴드), 창의체험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며 이를간 악 멤버들이 참석하는 한국판 SXSW(South by South West)형 창업축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페스티벌은 혁신센터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개시해 11월말 창조경제박람회까지 민관의 창업생태계 전체가 하나로 성과를 집대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환기자



**논산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개회** 논산시의회(의장 임종진)는 27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 간 일정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첫날인 27일은 본회의장에서 회기결정의 건을 시작으로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로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 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게 된다.

## 이상민 의원,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성공추진 간담회 가져

**관련기관 간의 협력강화,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 뜻 모아… 성공추진 방안 모색 위해**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성공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이상민(사진) 법사 위원장과 대전광역시, 대전시회 공동으로 오는 28일(금) 오후 2시 대전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기조발제는 이상민 국회법사위 원장, 주제발표는 최중환 국방기술 품질원 기획조정부장, 이상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패널로는 김병우 충남대 군사학교 교수, 이택구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최진해 대전시 국방산업자문관, 편광의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원

비 및 시험평가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 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 등 기관 간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고, 국방신뢰성시험센터는 대전시가 앞으로 국방산업의 거점도 시로 육성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며, 이를 위해 국방신뢰성시험센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강화,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 뜻 모아 성공추진 방안 모색 위해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모두 힘을 보태나가 앞으로 국방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따라서 국방신뢰성시험센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전시를 비롯한 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모두 힘을 보태나가야 한다"며, 저도 국회차원에서 예산 및 정책지원방안을 찾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성공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정복기자

##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가져

**구체적인 환경개선방안 마련 위해 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계획**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의원)은 27일 오전 11시,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도심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원종녹지 불법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 등에 대한

부별 추진사항을 청취하였고, 지난 4차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통한 빌전방안 모색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서금택 대표의원은 "단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공장시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치원역 주변을 쾌적한 주거환경 기능을 가진 도시재생 기반시설로 재정조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의 관문허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10월 중 구체적인 환경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11월 중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12월 중 본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 황재만 의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위한 의정활동 눈길

"모든 사업 등에 있어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 강조



아산시의회 황재만의원이 제18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아산시 집행부에 아산시민과 이용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권위보다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5분발언,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제1차 정례회에서 아산시청 정문을 시청 방문자가 시청을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옮기는 5분발언을 실시해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눈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본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25일은 「아산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령에 맞게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에 대해서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외국 지방자치 단체와의 우호 협력 등 일반적인 교류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서, 국외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 시켜 아산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했다.

특히 건설공사사자 등을 보행자 구간에 적치해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만큼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이같은 요구사항을 제기해 이관경 의원이 이를 시민의 입장에서 고수해주시고 있다. 지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조 2천억 원이 소요되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아산 통과지점에 시민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도시계획과의 아산시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있어 균형 있는 개발계획 수립으로 아산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용역업체의 중요성을 들기도 했다.

황 의원은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권위보다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5분발언,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제1차 정례회에서 아산시청 정문을 시청 방문자가 시청을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옮기는 5분발언을 실시해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눈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본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25일은 「아산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령에 맞게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에 대해서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외국 지방자치 단체와의 우호 협력 등 일반적인 교류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서, 국외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 시켜 아산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도심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원종녹지 불법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 등에 대한

부별 추진사항을 청취하였고, 지난 4차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통한 빌전방안 모색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서금택 대표의원은 "단기

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공장시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치원역 주변을 쾌적한 주거환경 기능을 가진 도시재생 기반시설로 재정조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의 관문허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10월 중 구체적인 환경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11월 중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12월 중 본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8월 18일 의원회의에서 문화관광과의 가을축제 활성화 대책 용역보고회를 청취하고 향후 시민을 위한 공연은 기획자의 눈높이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이 되어야함을 해당과장에게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도심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원종녹지 불법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 등에 대한

부별 추진사항을 청취하였고, 지난 4차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통한 빌전방안 모색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서금택 대표의원은 "단기

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공장시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치원역 주변을 쾌적한 주거환경 기능을 가진 도시재생 기반시설로 재정조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의 관문허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10월 중 구체적인 환경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11월 중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12월 중 본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현장 활동

**꿈과끼를 키울 맞춤형 교육정책 제언 쏟아내**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학생들 꿈과끼를 키울 맞춤형 교육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현장에 내재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기온조의 경우 학교와 기관을 연계해 학생 주제별로 학교여관 청탁, 교육 프로그램 확장, 교육 시설 개선 등을 통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처를 제언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온조 의원(천안5)은 이 자리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처를 제언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온조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교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화를 시도하는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모두 힘을 보태나가 앞으로 국방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될 수 있는 대전시에서 미래를 위한 대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온조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교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화를 시도하는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온조 의원(천안5)은 이 자리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처를 제언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온조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교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화를 시도하는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온조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교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화를 시도하는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온조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교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화를 시도하는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온조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교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화를 시도하는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온조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교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화를 시도하는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온조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교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화를 시도하는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온조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교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화를

# “청년일자리 창출·유망중소기업 육성 역점”

## 장시성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대전지역 경제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일부 중소기업들의 이탈이 기속화되고 있고 이로인한 청년 실업난은 더욱 기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장시성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취임 이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지역 향토기업들의 마케팅지원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시성 원장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에 취임하신지 6개월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진흥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제반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행 복한 일자리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이야기로 대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만 최근 들어 국내·외의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맞물려 지역의 중소기업 체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등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실업율이 증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시간이 흐를 수록 원장으로서 느끼는 무게감이 더 커집니다.

이에 따라 기업체들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나가는 한편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공감대를 형 성하면서 계획된 각종 사업을 척실히 진행하여 활 기찬 대전경제 실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 시민들에게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조금 낯선데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소개해 주시죠.

우리 진흥원은 지난 1998년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설립된 이후 2012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대전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실하게 정착 될 수 있도록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로 자금과 기술부족, 그리고 판로개척 및 인력관리의 문제로 많은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진흥원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상용화 지원과 마케팅지원 및 시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창·취업 지원업무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장 취임 후 해외 통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인력을 전진 배치하는 한편 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4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강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 대상기업 후보군 육성을 위해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과,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및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유망중소기업 Global-up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업성장을 위한 마케팅지원사업 강화입니다. 국내 판로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통상지원을 위해 중국의 남경과 심양 그리고 일본 후쿠오카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동구 정동 일원의 인쇄 제조업 집적지를 활용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소공인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기존사업자들에게 맞춤형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창업 비즈니스를 위한 교육지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넷째는 ‘맞춤형 창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일자리지원센터를 ‘청년인력관련센터’로 확대하여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지역의 대학생과 청년의 친밀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과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 활기찬 대전경제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사업비 확충에 주력하고, 경제의 핵심주체인 청년 등 대학생의 직업능력개발과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Good-job 행복드림버스는 대전시의 대표적인 현장 일자리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동안에는 구직자가 취업 지원기관을 찾아가서 제한된 서비스를 받았으나 본 서비스는 대형 버스를 이용하여 면접과 상담이 가능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시·공간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구직자와 구인업체 지원을 위해 대전시 구석구석을 찾아가 디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니다. 또한 ‘대전일자리톡(Talk)’은 누구나 일자리와 채용이 필요할 때 손쉽게 사용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일자리 매칭을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1:1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대전 지역 우수 중소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 업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최근 우리지역의 일부 중소기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는 업체의 투자기지 판로·마케팅 학보와 지역 내에서 확장·이전해 나갈 생산기반 공간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체의 이탈방지를 위해서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투자시 필요한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타 지역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고 계셨는데요. 가장 보람 있던 일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 37년간을 공직에 몸담아 왔습니다. 국가와 민

족을 위해 작은 일이나마 족적을 남긴 것에 대해 자부심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람이라면 지난 2009년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시절 대전 무역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인근에 선사유적지가 있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처리가 되지 않아 건립이 불가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들과 밤늦도록 토론하여 이해 설득시켜 합당한 논리를 통해 대전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역회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관철 시킨 점은 그 옆을 오가면서 지금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시·국장으로 있으면서 대전문화재단과 대전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대전시민의 문화활성화 기회를 확대하고 대전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일 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이ول과 대전효문화지원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시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여 효문화 중심도시로서 대전을 고양시켰으며, 특히 뿌리공원과 족보박물관, 효문화지원센터를 비롯 건립중인 효문화진흥원을 포함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효! 월드’를 선정하고 앰블럼을 기획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친 것에 대해 보람이라고 봅니다.

특히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2001년 도 행정자치부·지방행정연수원 재직시 몽골국의 21명 민선도지사를 초청하여 2주간 국내연수를 추진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도지사 전부가 오는 사상 유래가 없는 연수를 기획 추진하면서 고려말 몽골 침략으로 약

소국인 우리 선조들이 겪었을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몽골을 뛰어넘는 우월적 입장에서 그 옛날 우리를 지배했던 다른가지의 후손인 몽골 도지사들을 연수시키는 것이 그 원한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도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중구 부구청장 재직시 문화재를 중교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앙로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전주 한옥 마을처럼 실개천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사업주들의 반대로 일부 모양만 갖춘 미완의 사업으로 끝나 안타까운 마음이 됩니다.

▲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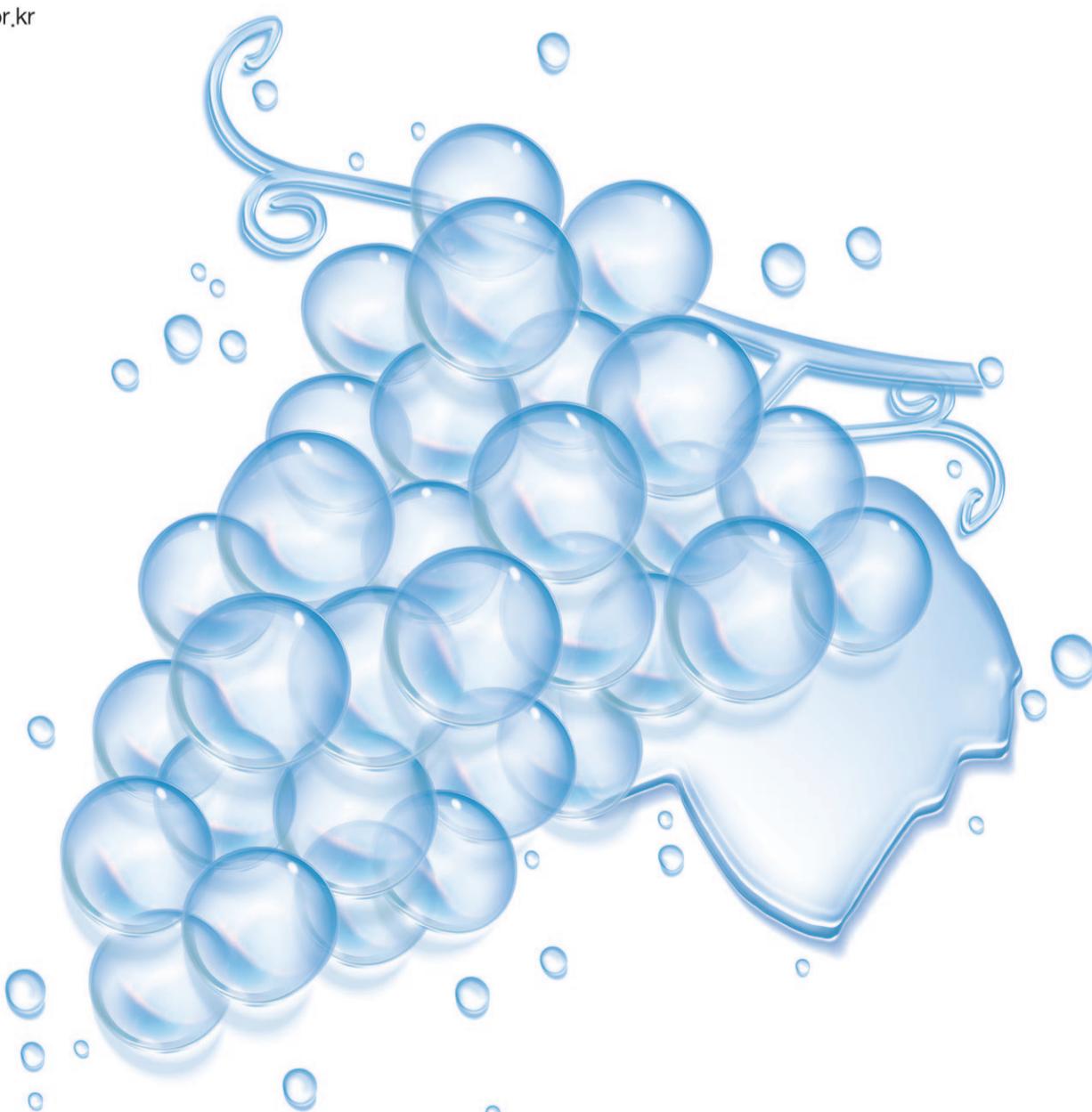
우리 진흥원은 무한경쟁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생력을 키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야말로 대전경제를 일으키는 구심체이며, 대전경제 발전의 원동력이기에, 급변하는 경영 환경속에서도 튼튼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결같은 자세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존중하며, 사업 현장을 밟고 뛰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대전경제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답= 이정복 정치행정부장·정리= 김정환 기자

<http://www.kwater.or.kr>



## 신선하고 맛있는 물!

언제 어디서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건강한 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물 전문기업 K-water!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을 만듭니다

K water

## ●동정●●●

## 시설운영 등점검



박용갑 충구청  
장= 28일 오  
후 2시 산서체  
육공원을 방  
문해 시설운  
영 등 점검.

## 포도자선 바자회



한현택 동구청  
장= 28일 오  
전 11시, 산내  
농협 대성지  
점에서 개최  
되는 자녀안  
심협의회 포도자선 바자회 참석.

## 정림복지관 청춘대학 개강식



장종태 서구청  
장= 28일 오  
전 11시 정림  
동립립사회복  
지관에서 「정  
립립복지관 청춘  
대학 2학기 개강식」 참석.

## 3D프린팅 교육전문가 수료식



허태정 유성구  
청장 = 28일  
오후 4시 ETRI  
창업 공작소에  
서 열리는 3D  
프린팅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 및 성과  
보고회 참석.

## 현장 대회의 날



박수범 대덕구  
청장 = 28일  
오후 3시 30분  
비래동 외 3개  
동에서 열리는  
현장 대회  
의 날 참석.

## 한대회 주무관 공학박사 취득



대전시는 교통  
정책과 한대회 주  
무관(행정6급·사  
진)이 성균관대학  
교 공학박사를 취  
득했다.  
한 주무관은 지  
난 25일 성균관대학 2014학년도 후  
기 학위수여식에서 「전기택시 충전소  
위치 최적화를 통한 Life cycle cost 분  
석」논문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받  
았다.

상기 논문은 전기택시의 충전소 입  
지 최적화 방안과 전기택시 도입에 대  
한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로서 전기자동차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의 적절하며 전기택시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과 활성화 전략  
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특징이다.

전기택시는 현재 심천·홍콩(중국),  
뉴욕(미국), 서울(한국) 등 세계 몇몇 도  
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  
나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에서  
전기택시 도입에 대한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심층 연구를 수행한 결과로 국내 전기  
택시 1호 박사라는 칭호도 얻게 되었다.

한 주무관은 그동안 2030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대중교통 중심  
도시 대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  
하였고 이번 박사학위 취득을 계기로  
인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대  
전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  
짐을 밝혔다.

이영호 기자

## 市,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 장비구축 · 기술지원에 총 50억 원 투입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제조업 혁신역량 강화 및 국방ICT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D프린팅 지역거점센터로 대전시가 최종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금년 8월부터 2019년 까지 총사업비 50억 원(국비 38억 원, 시비 12억 원) 규모로 4년간 추진된다.

시는 지역의 산발적인 제조산업 인프라와 주력산업과의 연계를 통

해 제조공정 고도화 및 제조혁신을 목표로 국방ICT를 특화분야로 하여 3D프린팅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으로 대전테크노파크 지능화로봇센터 내에 3D프린팅 장비 5대를 도입해 거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모델링부터 프린팅, 후처리까지 제조공정 개선을 지원함으로서 사업화 기반 등 창업 블록을 조성하고 연구소 및 대학교 등에 이미 구축된 3D프린터 장비를 DB화하여 기술지원 서비스

허브 구축 및 3D프린팅 인력양성을 추진하게 된다.

대전시는 차세대 유망 핵심기술로 집중 조명되는 3D프린팅 세계시장 규모가 2012년 22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108억 달러로 고속 성장 추세이며, 이번에 구축되는 3D프린팅 거점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우수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이제 아이디어만 좋다면 대학생 창업 및 중소기업은 물론 누구나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전·후방 제조공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지난 8월 21일 우리시가 전격 유치한 국방신뢰성 시험센터 부지 내에 50억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2018년까지 국방ICT 융합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3D프린팅 거점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 서구, 도마1동 주민센터 건립 중간보고회

## 2017년 2월 준공 목표 추진

절약형 건물', 다양한 시설을 갖춘 주민을 위한 주민센터로 건립된다.

기존 도마1동 주민자치센터는 39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로, 그동안 문화·복지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나, 주민센터 신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주민센터, 이용자를 배려한 사람 중심 주민센터 부지에 지하1층~지상3층(총면적 1,283㎡) 규모의 ‘도마1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2015년 12월 착공해 201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도마1동 주민센터’는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 편한 ‘여성친화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김태선 기자

## 이춘혜 교수 정년퇴임전 9월 16일 열려

## 우리 고유의 민화 풍 그림 표현

풍그림을 도자타일에 표현해 한국미를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 교수는 옛 자취를 둘러보며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기원하면서 민화를 소재로 한 도자타일과 환로 작품을 제작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전시기간은 9월 16일~22일까지이다.

송병배 기자

## 연극 ‘기록의 흔적’ 9월 5일 열려

아니라 치부도 섭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기록의 흔적>작가 최준호는 조선시대 실록을 관리하는 사관과 연산군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과거의 흔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관객과 소통하고자 했다.

또한 극단 떼아뜨르 고도를 대표하는 7명(원영국·박승원, 짧은사관역/정선호·최일경, 짧은청년역/신현지·제비윤씨, 어린연산, 연산군역/오형준·유자광, 엄숙의역/손종화·임사홍, 성종, 정소옹역/박채윤·인수대비, 코러스역/복성수·박종원, 춤꾼역)의 배우가 출연하여 대전배우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영호 기자



## 중구, 지역발전 구심점 역할 ‘지역리더’ 양성

## 제9기 뿌리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결에 자발적인 참여의지 및 지역리더로 갖춰야 할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좌를 요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구는 다양한 외부강사 섭외와 함께 새로운 강좌 신설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한편, 수강생을 중심으로 수강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 조직 구축과 사후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여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중구 생활학습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junggu.go.kr>)와 구청 사회복지과(042-606-7417) 및 각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중구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합하는 지역리더로 활동하고 싶은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유성구, 학교협동조합 설명회 개최

유성구는 27일 오전 10시 구청 종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협동조합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초의 학교협동조합 연구서인 ‘만들자, 학교협동조합’의 저자 박주희 교수(가천대학교)의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와 사례’ 강의 및 학교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학교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를 알리고 향후 설립 추진 시 교육부분은 유성구가, 컨설팅부분은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2015년 지역발전사업 평가

## 市 선도산업 우수사례 선정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추진 중인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의 2015년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숨길 조성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에도

선도산업 육성 사업이 특별·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비 3억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2014년 30억 원을 투입하

대전시에 따르면 ▲안정적 예산 확보 및 명확한 시의 사업 추진의지 ▲지역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반영한 사업기획 ▲기업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리뉴얼을 통한 기업수요 충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시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인정되는 매체를 통해서 책이 주는 소중한 가치인 상상력과 창의력, 통찰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천자료인 책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one source multi user’의 확장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영호 기자

## 중구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정비

## 총 20개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이용시민들 편의 제공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유개승강장 신규설치 및 내부조명 시설 개선 등 20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신규설치 지역은 그동안 승강장 안내표지판만 있었던 곳으로 대전 세부서 앞과 산성동 한밭가든아파트 정문 앞 등 5개소이며, 지붕과 유리벽면, 조명시설 및 의자 등이 완비되어 있다.

## 대전지역 수출방안 세미나 열려

대전경제 통상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본부는 수출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대전지역의 수출 방안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시와 KOTRA 충청지부의 후원으로 28일 오후 2시 30분 대전무역회관 5층에서 열리며 한국무역협회의 심상열 시무처장이 대전지역 수출산업의 현황 및 발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회를 갖는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대전지역의

이와함께 시설이 불량한 15개소에 대한 내부 조명시설 개선사업과 유리벽 및 천장 불세척, 불법광고 제거, 승강장주변 잡초 제거, 파손된 부분 개보수 등 환경정비를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용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매년 5~10개소 정도를 신규설치하고 있다”며 “254개 유개승강장의 깨끗한 관리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이날 종합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주제 발표에 대한 의견과 대전지역의 지속적인 수출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장시성 원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저한 제품 관리, 고부가 가치화 및 제품차별화를 전략으로 기술혁신을 이루고 해외 업체와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통상기능을 강화해 대전기업의 지속적인 수출량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이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김태선 기자

## 광고문의

(042)538-3030

# 공주시-(주)에스엠테크 기업 투자유치 협약 맺어

기업투자유치 촉진위원회 열어… 올해 20개 기업 등지 틀어고용 창출효과 거둬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27일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주에스엠테크(대표이사 명홍식)와 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기업 투자유치촉진위원회를 개최 그동안의 기업유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에스엠테크는 월미 2농공단지 내 9,994.4m<sup>2</sup> 부지에 2018년까지 총 55억원을 투자, 시멘트 분쇄제 첨가제, 시멘트 기능성 첨가제, 폴리우레탄 합성수지 생산을 위한 설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날 열린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올해에만 총 20개 기업이 공주에 등지를 틀어 1,286억원의 기업투자를 877명의 고용창

롯데百 대전점에서 가을 패션리더로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강재욱)은 다양한 가을상품 행사를 마련해 가을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맞이한다.

다음달 6일까지 상품군별 롯데상품권 증정 사은행사가 진행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제품과 가구, 주얼리, 시계, 모피, 해외명품 상품을 당일 100·200·300·500·100만원 이상 구매시 각 롯데상품권 5·10·15·25·50만원을 증정하고 설화수, 헤라, 오크리, 후, 숨 등 1종 화장품 매장에서 당일 15·30·60·100만원이상 구매시에는 각 롯데상품권 1·2·4·7만원을 증정한다.

9층 특설매장에서는 '블랙야크vsK2 라이벌전' 행사와 '제쳐 가을상품전'이 펼쳐진다. 블랙야크 티셔츠와 아이스앳지 단문을 각 8만9000원과 39만7000원에, K2 바람막이 재킷을 11만3000원에, 비지를 8만5000원에 선보인다.

그리고, 노스페이스, 밀레, 라푸마가 참여하는 '제쳐 가을상품전'에서는 티셔츠, 경량다운재킷, 고어 트레킹화 등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만나 볼 수 있다.

8층 행사장에서는 '캐주얼 여름상품 마감전'이 열린다. FRJ 청바지를 4만 9000원에, 폴햄 티셔츠와 베이직하우스 여성 슬랙스를 각 7500원과 3만9000원에 판매한다.

5층에서는 '듀퐁 셔츠 창립 22주년기념' 특별행사가 진행된다.

스페셜 기프트 세트로 셔츠&넥타이 세트를 12만원과 22만원에 판매하고, 12만원이상 구매시에는 공기청정기, 듀퐁 셔츠 교환권(15만원), 듀퐁 양말(2족) 등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100%당첨 스크래치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1층 행사장에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가을패션 축집합 '스트리트 상품전'이 전개된다.

승병배기자



출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율러 9개 기업과는 1069억원의 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 앞으로의 기업유치 전망을 밝게 했으며 9월부터는 투자자문가를 비롯해 기업투자유치 촉진위원, 출향인사 등 다양한 채널을 기업유치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서는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들이 연고가 있는 기업체들 함께 방문하는 한편 기업이전 및 투자정보 등에 대한 동향을 사전 파악해 제공하는 등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시덕 시장은 이날 "오늘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에스엠테크가 우리시에 등지를 틀고 나날이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올해 대전농협 상호금융 마케팅 강화

농협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승현)는 27일 중구 선화동 대전지역본부 10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축협 지점장 및 간부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2015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방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추진 교육은 2015년 상반기 상호금융 사업을 분석해 진단하고, 2015년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 목표 달성과 건전결산을 위한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내외 경제부진 상황으로 단기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6년 연속 이어져오는 대전농협 상호금융의 탁월한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교육시간도 가졌다. 대전농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6년 연속 0%대로 전국 17개 시도지역본부 중 최고 수준이며, 2015년도 5월말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약 0.8%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전농협 상호금융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건전성을 6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병배기자

내 뚜렷한 회복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농협 상호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호금융 소비자보호준칙 제정·시행과 시기를 맞춰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상호금융 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미인드를 확립해 고객 신뢰도 향상 및 농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강령!" 선포식을 실시했다.

승병배기자

## 온양온천 시티투어 가을 코스 개편

### 티켓 한장으로 가을의 정취 물씬 나는 아산으로



아산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온양온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가 가을을 맞아 코스를 새단장하고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티투어는 온양온천역에서 출발해 충남 아산 근교의 여행지를 버스를 타고 관람하며 특히 시티투어 전담가이드가 동행하며 주요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곁들

여 한눈에 아산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상품이다.

관광코스는 요일별로 상이한데 화요일과 일요일은 이순신테마코스, 수요일과 금요일은 레일바이크 코스, 목요일과 토요일은 초록힐링코스를 운영한다.

시티투어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외암민속마을'과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 '현충사', 그리고 전국 아름다운 가로수길 10선에 선정된 바 있는 '곡교천 은행나무길', 숲길이 완만해 산림욕에 적합한 '영인산 휴양림' 등 아산의 다채로운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

탑승료는 요일별, 연령별 상이하며 종식과 개별 관광지 입장료는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정원 초과인 경우 예약자가 우선 탑승하므로 선예약이 필요하다.

기타 온양온천 시티투어 예약 등 문의사항은 홈페이지(<http://citytour.asan.go.kr>) 혹은 전화(관광안내 대표전화 : 1577-6611, 관광안내소 041-540-2517)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 K-water-당진시 위기대응 실무협의회 열려

### 위기상황 발생시 상호 협력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K-water 아산권관리단은 지난 26일 관리단 상황실에서 당진시의 관계직원들과 함께 수돗물 공급 중단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상호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2012년 양기관이 체결한 「수돗물 공급 위기대응 상호 협력 협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는데, 보령댐의 용수공급량 부족을 대처

함께 협력하여 해소하는 방안 및 배수시간 간 비상연계관로 운영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아산권관리단 조재홍 단장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수도사고 발생 등 비상 시에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 한화토탈 지역 청소년들과 '희망' 나눠요

서산시 대산읍 농곳리에 위치한 한화토탈이 등 2015 한화토탈과 함께 하는 '희망나누기' 사업비 전달식과 평가회를 개최했다.

한화토탈의 '희망나누기'는 2010년 7월부터 지역에서 소외받기 쉬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한화토탈은 이번에 전달한 3천만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억2천만원을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왔다.

희망나누기는 자원봉사자 멤토 50명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멘티) 51명과 1대1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스킨십을 쌓는 것은 물론 학습지도, 문화체험, 건강검진, 체육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멘토링사업과 차별화한 체험활동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는데 효과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심년,

어 청소년들과 지역 학교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대학에 입학한 지역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령고등학교, 대산고등학교, 대산중학교 등 대신공장 인근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인근 공군부대 소속 장교들이 선생님으로 참여하는 <반딧불이 공부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주부운영위원회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비른 먹거리를 일린다는 취지로 다양한 음식을 함께 만들고 식습관 예절을 가르치는 '행복 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심년, 이십 년 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앞으로도 서산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미래를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 자연·선악살 지사 및 체인점모집

• 주방장이 전혀 필요없음  
• 소자본 창업가능 (66㎡ 이하 환영)  
• 선약수로 재배한 선악살과 장어의 조화  
• 관저, 선화, 전민, 송촌점 오픈

• 간편한 요리  
• 업종전환환영  
• 국내산 100% 민물장어만 취급

**체인본부**

☎ 011-531-3535

청소년전화 1388 소재 영화 TV전파 탄다

제12회 EBS 국제다큐영화 출품



충남도와 (재)충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청소년전화 1388을 소재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12회 EBS 국제다큐영화에 출품된다.

이승준 감독의 영화 '얘기해도 돼요?'는 1388 청소년상담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한숨, 침묵 등 그 시기를 위해롭게 견뎌내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이다.

이 영화는 27일 서울에 위치한 아트하우스 모모, 29일 미로스페이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상영되며 TV 방송은 30일 오전 11시 40분 EBS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이와 함께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하반기 도 및 청소년진흥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원하고 도내 청소년쉼터 보호 청소년 등이 제작 및 연출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독립영화 '그네' 감독 노보성)의 시사회를 진행한다.

청소년전화 1388을 소재로 한 영화의 제작 및 영화제 출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은 전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라며 "청소년전화 1388을 소재로 한 이번 영화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시청률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포=이지웅기자

## 제16회 청양고추·구기자축제 Stand By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백세건강공원에서 열려



청양군이 오는 9월 4일부터 6일 까지 백세건강공원에서 열리는 제16회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역사·문화·예술의 도시 청양으로의 추억어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고추와 구기자를 비롯한 청양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으며,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연령별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마련돼 있다.

세계 고추, 구기자 품종 전시회, 신약 전시, 축제 사진 전시 등 전시프로그램과 김치만들기, 구기자 족족, 에어로켓 등 체험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중 상시 운영된다.

고추·구기자 복불복, 청양보물 찾기 마당, 지천 물고기잡기 체험, 두근두근 보이는 리디오 등은 관람객의 참여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을 찾은 이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현빈, 박구윤, 우연히 등 인기가수의 개막 축하공연, 평양민속 예술단공연, 박강성, 위일정(서울페밀리), 우순실, 도시의 아이들 등이 출연하는 사랑가득 행복콘서트가 마련돼 있어 더욱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청양=정상범기자

## 대전시티즌, 인천 상대 승점 사냥 나서

대전시티즌이 오는 29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8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대전은 지난 22일 FC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0-2로 패했다. 지난 26라운드 광주전 승리 이후 시즌 첫 연승에 도전했지만, 득점 없이 패하며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날 경기에서 대전은 스리백으로 수비를 두텁게 한 후, 외국인 공격수 3인방을 모두 선발로 내세우며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펼쳤다.

그러나 막판 접종면역이 아쉬움을 남겼다. 점유율(45.55%)과 슈팅(11:11), 유효슈팅(5:7)에서 서울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전반전과 후반전 종료 직전에 각각 한 골씩을 허용한 것이다.

광주, 서울로 이어진 원정 3연전의 마지막 상대는 인천이다. 인천은 최근 3연승을 달리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김도훈 감독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하며 위

기를 맞았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인천의 '찐풀 수비'다. 인천은 투박한 몸싸움과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 공격수들을 괴롭히는 텁에 수비벽을 뚫기가 쉽지 않다. 지난 리운드에서는 '닥공' 전북현대의 공격마저 틀어막으면서 최근 3경기 무실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닐론과 완렐손, 하피나로 이어지는 외국인 삼각편대가 유기적인 플레이로 인천의 수비벽을 허물어뜨려야 한다. 문전에서의 연계플레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무적인 건 닐론과 완렐손이 서울전에서 호흡을 맞추며 날카로운 패스와 드리블을 선보이며 예열을 마쳤다는 사실이다.

포백으로 전환한 뒤 공격적으로 나서 서울을 괴롭혔던 후반전과 같은 모습이 인천전에서도 재현된다면 충분히 승점 3점을 노려볼만한다.

김정환기자

# 국민 80% "노력해도 계층상승 어렵다"

계룡장학재단, 2015년

3/4분기 장학금 지급



이인구 계룡

장학재단 이사

장학재단 이사장·계

룡건설

명예회장·사

진은 8월 28일

84명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

게 2015년도 3/4분기 장학금 60,766,400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2015년도 전체 장학금 173,065,500원 중 일반장학금 제 3 회분으로 온라인으로 송금 지급되며, 92년 12월 재

단 설립 아래 이번 회까지 지급된 장학금의 총 규모는 연인원 13,489명 장학금 5,135,311,401원에 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계층상승 사다리' 대한 설문조사 결과

특히 국민들은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주거비 부담과 교육비 부담을 꼽았다.

과도한 주택구입비와 주거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59.8%에 달했고, 과도한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꼽은 응답지도 29.2%에 이르렀다. 반면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과 과도한 의료비, 부족한 문화여가비라는 응답은 각각 6.4%, 2.8%, 1.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 세대는 주거비 부담이, 4050 세대는 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부정책으로 소득재

분배 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소득증대 및 지출부담 완화 정책

응답률도 높은 수준이다. 응답자의

46.7%는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통

한 중산층·서민의 복지 확대'를

꼽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

득증대'는 33.0%,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지출 부담 완화'는 20.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3040세대에서 소득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고도 성장기를 경험

한 50대 베이비붐세대는 소득증대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대는 일자리대책을, 60세 이

상 고령층은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개인

의 자발성과 경제사회적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교육

과 벤처를 통해 계층 상승이 가능

하도록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

동시장·이중구조화를 완화해 일자

리 상승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

고밝혔다.

김정환기자

송병배기자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농촌사랑 1사1촌 체결

## 음봉면 송촌리 마을과 자매결연



야 재능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또한 마을에서도 농촌전통테마마을(이장 김상국)과 송촌리 마을(이장 김상국)을 운영하는 각종 편의시설 등을 공단직원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과 마을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자매 결연은 마을의 경관과 특색을 살린 Win-WIN전략으로 공단과 송촌리 마을간 상호 협력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복리증진을 돋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구내식당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을 마을에서 직접 구매해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기술 분

## 당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수료

### 경력단절 여성실업자대상 광고편집 디자인 과정 교육



수료생들은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27일 까지 총 200시간의 전문 과정을 이수했으며 시는 앞으로 지역의 광고업체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수료생들의 취업을 적극 앞당길 계획이다.

이번 과정은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실업자들에게 광고편집 디자인 인력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전달해 직업능력개발,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시 광고업체 종사자들이 ▲교육계획의 수립 ▲현장실습 ▲사례분석 등으로 교육을 실시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당진=최근수기자

대덕대 해군 특수군사학과, 6년 연속 전국 최다 학생 배출학과 영예 계속 이어가

## 2015년도 해군군장학생 전국 최다 학생



원시 졸업생 전원에게 '기산점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2015학년도부터는 학과에서 선발되는 '대 학종장 추천제' 도입을 통해 더 많은 부사관 진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졸업생 중 장교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3사관학교로 편입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학과와 연계교육과정 협약이 맺어있는 공주대, 통영대 등으로 무사협편입을 하고 있다.

대덕대 해양기술부사관과 학과장 김일진 교수는 "학과에서 국방기술인력에 요구되는 현장 실무 학문의 습득으로 국제화 격차 및 인성을 갖춘 점에 군간부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해군으로 진출하게 되면 전공 직별에 따라 최첨단 이지스 함과 같은 첨단 함정에서 근무하며 조국수호와 원양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는 직업 군인으로 거듭난다. 이들 학과는 해군 부사관 진출에 있어 부사관 지

방진출에 있어 주변에

여기에는 교육을 실시

하는



논산소방서, 엄시면 광석1리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 논산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지난 27일 오전, 엄시면 광석1리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당진署, 학교폭력예방 하이파이브 캠페인 전개 관내 전 학교가 개학과 함께 신학기를 시작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하이파이브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신학기 초 폭력 없는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1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릴레이형식으로 진행된다.



온양4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 개최 아산시 온양4동 청소년지도협의회(위원장 차민철)는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6일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청소년지도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방안을 모색했다.



청양어린이집, 119소방동요대회 꼭 우승할꺼예요!! 청양소방서(서장 이광성) 관내 청양어린이집은 지난 27일 청양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제7회 충남‘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예행연습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나서 공주경찰서(서장 이인복)는 8월 27일 공주여중 정문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지역경찰, 학교선생님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 전단지 등을 배부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균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천안동남소방서,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지난 26일 병천면에서 관내 국경관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직원 및 병천19인전센터 소방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 및 사고수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 서산 도계장 증설 주민갈등 확산

진정서 작성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총리실 등 제출할 예정

서산시 고북면 가구1·2리, 기포1·2리, 남정3리 주민 150명(반 추위집계)이 27일 주신우에프에스 정문에서 도계장증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신우에프에스 증설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최목용)에 따르면 일부 찬성했던 주민들도 현재 반대로 돌아서고 있다고 주장해 증설 반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대하는 27일 집회가 끝나는 대로 진정서를 작성해 반대 서명서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6일 본보가 보도한 내용을 두고 주신우에프에스 측은 주민들의 주장을 대해 공정회는 여러 번 열었고 공장규모가 10배 이상 증



축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신식 시설을 구입해 지금 도계 6천수 보다 약 1.5배 정도 도계

수가 늘어나지만 물로 식히는 공법이 아닌 에어로 식히는 공법으로 설계돼 폐수 발생이 주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운송 중에 날리는 뒤陟과 맑 비늘이 공장에서 날리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고북중학교의 경우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다는 공문까지 받았으며 장학금까지 지급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 제안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도 토로해 서산시의 가교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신우에프에스는 출신업(도계업) 도내 1위업체로 최근 공장증설 승인이 나면서 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산=김정현기자

대성학원, 채용비리

연루 교사 2명 직위해제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회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교사 2명을 직위해제했다.

27일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대성학원은 지난 25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채용비리에 연루된 교사 2명의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돼 겸직에 기초된 교사는 모두 18명이다.

시 교육청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나머지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등도 추가 요청하기로 했다. 또 대성학원 소속 5개 학교는 신규교사 채용 시 교육청 위탁을 적극 검토 키로 했다.

daejeontoday.com

## 직무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고용노동청 - 대전상장법인협의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본부

대전고용노동청(청장 김영국)은 27일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주에 이에 대해서 대전고용노동청-대전상장법인협의회-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3자간 「일·학습 병행제 및 직무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대전지역 내 「일·학습 병행제」 등 스펙보다는 능력에 따른 채용·보상·인사관리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하고, 지역 내에서 NCS에 기반한

직무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협약을 통해 대전고용노동청은 ▲ 기업이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 능력 중심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대전상장법인협의회 회원기업은 ▲ 직무능력중심 채용문화를 지역에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영국 청장은 “능력중심 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대전상장법인협의회와 같은 역량 있는 기업들이 일·학습병행제와 능력중심 채용 확산에 함께 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산업계와 지방 고용노동청이 협업하여 지역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확산 모델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 금산소방서, 교통사고 인명구조 활약

충남도내 발생량급증 … 도농기원, 1세대 성충 산란 전 방제 당부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26일 금성면 하류리 학생수영장 인근에서 금산방향으로 차량 단독 교통사고 지정점수 후 즉시 현장 출동하여 요구조차 2명을 구조했다.

김형섭 구조대장은 “교통사고는 대부분 과속 등 운전자들의 조급함에서 비롯돼 귀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당부하였고, 구조장비의 100% 가동 상태 유지를 통해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산=김남규기자

한국소비자원·농협중앙회 공동, 지방소비자 권리증진위해

## 당진시 ‘소비자 교육 및 이동상담’ 실시

한국소비자원은 27일 당진시 고대면에서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충남지역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및 이동상담’을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방소비자의 권리증진을 위해 각 지역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폭넓은 협업을 통해 정부 3.0 기조에 부응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침석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소비생활 관련 피해상담으로 이어졌다.

또한 자생한방병원에서 건강검

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한국석유 관리원은 자동차에 글유린 석유의 진위 여부 검사를 실시했다. 이밖에 자동차 및 가전제품·휴대폰제조사가 동참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당진지역 소비자의 권리증진에 보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대전광역시에 대전지역을 개소하여 대전·충청·세종지역 소비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선기자

## 아산소방서 ‘가을철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을 재개한다.

이는 가을철 산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산악사고 발생 시 ‘등산 목 안전지킴이’를 이용한 등산객 안전조치 및 신속한 대처로 산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현장간이 의료소 설치·운영 ▲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산로 구간에서 등산객들을 위해 협업, 당뇨 측정 등 초기 건강 체크 ▲ 실족이나 탈진, 호흡곤란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 ▲ 안전한 산행을 위해 각종 산악사고 예방·홍보 ▲ 사고가 잦은 등산로 유동찰 등이다.

아산=리량주기자

9월 평균 진료인원 115만명으로 3월보다 30% 많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최근 5년간 (2010~2014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2010~2014년) 9월 평균 진료인원이 114만6천명으로 전월보다 2배 이상, 3월에 비해 30% 이상 증가를 보였다. 2014년 기준 진료인원은 약 635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32%가 증가했으며, 특히 10세 미만 유·소아가 전체 진료인원의 24.3%(4명 중 1명)를 차지해 주의가 필요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노영수 심사위원은 “알레르기성 비염은 원인인자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며, 개인마다 원인이 다르므로 평소 자신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인자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알바생 49.2% “돈 없어 여름휴가 포기”

## <알바천국> 설문조사, 알바 시급이 낮을수록 휴가 계획 감소하는 경향 보여

여름 휴가 막바지에 접어든 요즈음, 어려운 경제상황에 휴가는 포기한 채 일에 매진하는 알바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일바생 1,242명을 대상으로 ‘2015 일바생 여름휴가계획’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60.1%)만이 올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휴가계획이 없는 이들 중 절반 가까이되는 48.2%가 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휴가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생들의 휴가계획은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이 낮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저시급인 5,580원 내외를 받고 있는 경우 58.7%가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받고 있는 시급에 따라서도 휴가 비용에 차이를 보였다. 최저시급(5,580원)

알바생은 75%가 휴가를 계획, 최저시급을 받는 이들보다 약 16.3%나 높았다.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 답한 746명은 여름휴가 일정으로 평균 3.7일을 예상했으며, 2~3일에 절반 이상인 57.2%가 집중됐다.

휴가 일수 역시 시급의 영향을 받아 시급이 높을수록 휴가일수가 증가했다. 최저시급(5,580원) 내외로 알바비를 받는 경우 3.3일의 가장 짧은 휴가를 계획했으며, 10,000원 내외의 높은 시급을 받는 경우에는 4.4일로 하루 더 긴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알바생들은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평균 35만원의 비용을 지출할 예정이었다. 또한 받고 있는 시급에 따라서도 휴가 비용에 차이를 보였다. 최저시급(5,580원)

내외로 알바비를 받는 알바생의 평균 예산휴가비용은 29만 5천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10,000원 내외의 높은 시급을 받는 알바생들은 이보다 약 13만 4천원 높은 42만 9천원의 휴가비용을 사용할 것이라 추측하게 됐다.

구체적인 휴가 계획으로는 절반 가까이 되는 47.2%가 제주도를 제외한 부산, 통영 등의 ‘국내여행’을 다녀 올 것이다 밝혔다. 이어 ▲‘가족 및 친구와의 만남’(6.6%), ▲‘해외여행’(12.1%), ▲‘제주도 여행’(7.4%), ▲‘취미 및 문화활동’(6.3%), ▲‘방콕’(4.9%), ▲‘이직준비’(2%) 순이었으며, 미정이라 답한 이는 5.2%에 불과했다.

반대로,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 답한 496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둘

중 한 명(49.2%)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를 1위로 꼽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휴가계획을 접은 알바생들이 상당수임을 추측하게 됐다.

이어 ‘바쁜 일상에 쉬기 어려워서’(16.9%)와 ‘알바하는 곳에 양해 구하기 힘들어서’(10.4%)와 같이 알바생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이유가 각각 2,3위에 올랐다. 그 외 ‘딱히 휴가가 필요 없다 생각해서’(6.6%), ‘휴가기간 같이 보낼 사람이 없어서’(4.6%), ‘부모님 및 주변 눈치가 보여서’(2.2%)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적은 시급을 받는 알바생일수록 ‘경제적 여유 부족’을 이유로 휴가를 포기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최저시급(5,580원) 내외를 받는 알바생이 53.4%로 가장 높았다.

이정복기자



## 논산중앙초, 여름방학 NIE 캠프 성료

논산중앙초등학교(교장 김용진)는 여름방학 중 학생들이 신문과 독서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자세를 키우기 위해 여름방학 독서NIE 캠프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름방학 독서NIE 캠프는 3~6학년 희망자 35명을 신청 받아 8월 1일 오전 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교육 선생님과 함께 신문을 활용한 체험 캠프를 실시했다.

논산=한대수기자

학생들이 신문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신문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독서 및 글쓰기 활동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문 일기쓰기를 통해 현실 속의 다양한 사건이 담긴 신문을 꾸준히 읽어나가며, 신문 속에 담긴 핵심 내용과 모르는 단어나 새로운 지식을 나의 생활과 학습에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논산=한대수기자



당진 호서중 관악부, 제13회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 수상

## ‘아름드리 오케스트라’ 의 금빛 선율

당진 호서중학교(교장 조성준) ‘아름드리 오케스트라’ 관악부가 지난 25일 열린 제13회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춘천시가 주최하고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초등부 19개 팀, 중등부 10개 팀, 고등부 15개 팀 등 44개 팀이 참여했다. 대상 팀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되는

당진 =최근수기자

것을 비롯해 총 12개 단체 및 개인에게 총 1,9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중등부 경연에서 호서중 관악부는 박형석 교사의 지휘에 맞춰 행진곡 ‘Lively Avenue March’와 자유곡 ‘Virginia’를 연주해 그 동안 같고 닦은 기량을 전국 무대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며 관객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학교급식소에서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생사고의 사례와 예방요령에 대해 김보영 주무관의 설명과 한국행복평

## 청양교육지원청,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청양교육지원청(교育장 김은자)은 27일 청양 관내 초·중·고등학교 조리사 및 조리원 약 50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2학기 개학과 동시에 급식이 재개됨에 따라 여름방학동안 느슨해진 긴장감과 경각심을 제고하여 학교급식 위생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복한 급식 현장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급식소에서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생사고의 사례와 예방요령에 대해 김보영 주무관의 설명과 한국행복평

생교육원 오정화 강사의 ‘학교급식 민족 도 향성을 위한 친절교육 및 직업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스트래칭’으로 구성됐다.

김은자 교육장은 “그 동안에 급식현장에서의 숨은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번 연수를 통해 조리사, 조리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겁게 일하고 급식 위생·안전 관리에 내실화를 기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북수초, 자유탐구발표 통한 과학적 사고능력 기르기 아산북수초등학교(교장 김상열)에서는 지난 25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탐구중심의 수업 개선을 통한 행복한 교실문화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과학탐구지도방법 관련 자유탐구주제발표를 실시했다.



수학의 즐거움과 농업인들께 감사의 마음 되새겨 예산교육진흥청 융동초등학교(교장 조원화)는 26일 오전 9시부터 1시간동안 회망 학부모와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텃밭 가꾸기’ 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 대전교육청 ‘학교 안전교육 지원지도’ 배부

### “대전 지역 안전체험교육 정보를 한 곳에”



영역에 따라 구분하여 구성했다.

무엇보다 ‘학교 안전교육 지원지도’를 제작함에 있어 충남도시가스 외 46개 기관이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7대 표준안에 따른 60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

‘학교 안전교육 지원지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전달되었으며, 이를 통해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안전교육 분야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기관, 상담전문기관, 봉사단체 등에 교육을 신청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에 의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의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대전 지역의 기관에 대한 정보를 모아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인의 7가지

김정환기자

## 금산교육지원청, 이회원 교육장 이임

### 꿈과 희망으로 행복이 가득한 교육의 요람을 만들다



금산교육지원청 제27대 교육장으로 2013년 9월부터 재임한 이회원 교육장은 오는 9월 1일자로 천안 청수고등학교로 영전을 한다.

이회원 교육장은 1977년 대전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공주사대부고 등 여러 학교에 교사로서 재직하였고, 충남도보령교육청·충남도교육청 장학사, 학업성적·교육과정 팀장,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혁신기획단장,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연수부장,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한학관을 역임하면서 전문직의 길을 걸어 왔으며, 논산중학교 교장을 거쳐 2013년 9월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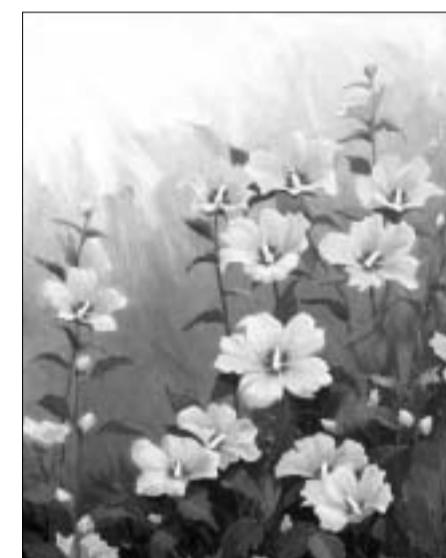
금산교육지원청에 부임한 이래 학교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행복한 금산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누구 보다 바쁜 활동 속에 금산교육 발전에 전력하였다. 특히 ▲2014~2015 교육부지정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 운영 ▲2014~2015 발명진흥 우수교육지원 선정 ▲2014~2015 청렴도 1등급 우수기관 선정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기관 학부모지원 우수 교육지원청, 장학활동 우수 교육지원청 ▲2015 다문화 선도교육지원청, 수영교육 선도교육지원청 선정 ▲2015 상반기 감사 우수기관 선정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부 지정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는 2014년 전국 교육장 워크숍 및 전국 자유학기제 담당장학사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 있으며, 경남교육청, 기평교육지원청 외 전국 8개 교육행정 기관에서 금산을 내방하여 컨설팅을 가진 바 있다. 금산=김남규기자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특별 展 열려

### 다음달 1일부터 화폐박물관…무궁화 소재 이은정 서양화 200점 선봬



경력을 가진 이은정 작가의 7번째 개인전이다.

우리나리를 상징하는 무궁화꽃을 주제로 한 서양화 작품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쉽게 지나치는 무궁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닌 무궁화꽃은 화려하게 피었다가 금방 점진적으로 벗어나며 그 뒤에는 오랜 기간 개량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피지 못하는 장미와는 달리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꽃이 피운다. 은근하고 끈기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을 투영해 나라의 상징꽃으로 여긴 선조들의 슬기로움을 엿볼 수 있다.

200여종의 무궁화 중 흔히 볼 수 있는 20여종의 무궁화를 캔버스에 옮긴 작품으로, ‘계월향’, ‘님보리’, ‘신대양’ 등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 서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층 제1교육실에서 접수 진행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이뤄진다.

원서 접수는 고3 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출신 고교에서 이뤄지며, 겸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와 출신 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르면 출신 고교나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중 한 곳을 선택해 가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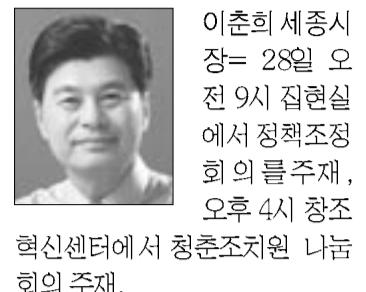
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는 관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서산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2층 제1교육실에서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서산=김정환기자

## ● 동정 ●●●

정책조정회의 주재



이준희 세종시장= 28일 오전 9시 집현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 오후 4시 창조혁신센터에서 청준조직원 나눔회의 주재.

## 하반기 일자리사업 안전교육



황선봉 예산군수= 28일 오전 10시 제1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2015년도 하반기 일자리사업 안전교육 참석, 오후 4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 시상 참석.

## 2016년 시책구상 보고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준희가 27일 시청에서 이준희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정책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시책 구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책은 총 190여 건으로 그동안 각 부서에서 발굴한 사업을 실·국별 자체 검토회의와 부시장 주재 토론회,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보완했다.

실국별 신규 추진과제를 보면, 기획 조정실은 ▲일 중심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성과평가 강화 ▲남세자 편의 세정 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행정 구현 등을, 시민안전국은 ▲시민 안전육구에 부응하는 능동적 예방행정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시민 힐링 공간 제공 등을 제시했다.

균형발전국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마련 ▲시립도서관·체육센터 등 문화 체육 인프라 확충을, 행정복지국은 ▲시민을 위한 대민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종형 복지제도 개선 ▲취약계층 및 여성·아동 복지 지원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산업국은 ▲일자리 중심의 활기찬 창조경제 기틀 마련 ▲친환경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 휴식공간 제공 등을, 건설도시국은 ▲품격높은 도시 정주환경 조성 ▲편리하고 행복한 도로환경 조성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준희 시장은 “내년도는 세종시가 지속기능과 신성장 동력 확보 등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의 요구가 큰 문화·관광·교통 분야 등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추가 보완 과정을 거쳐 사업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내년도 업무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세종=김정환기자

## 홍성군서부면 공중화장실 일제정비

홍성군 서부면(면장 한선희)은 내달 남당항에서 개최 예정인 대회 축제 및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 및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공중화장실 일제 정비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면은 남당항과 속동진망대 등 관내 깨끗한 공중화장실에 대해 공공으로 참여자를 전달 배치하여 1일 1회 이상 화장실 내·외부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여 상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중화장실은 대상으로 출입문, 변기, 손건조기 등의 시설물 보존상태 및 화장실 내·외부의 환경상태 등 전반적인 관리 상태를 일제점검 정비했으며, 상시인력 배치를 통해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장실 등 각종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허증을 밝힐 힘 위해 수시로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도, ‘2015 지역발전사업 평가’ 우수사례 선정

## 예산절감·협업 등 우수성 인정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지원사업’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가 선정하는 2015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도는 27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지원사업’을 추진한 공로로 기관표창 및 개인표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한 공업용수도건설지원사업 중 ‘예산-당진지역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의 예산절감 등 사업추진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도는 27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지원사업’을 추진한 공로로 기관표창 및 개인표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지난해

‘예산-당진지역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예산-당진지역에 조성되며 시작한 산업단지(합덕일반산단, 합덕인더스파크, 예산산단, 예산신산단, 예산산소재산단, 예산미니복합단지)에 공업·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다.

당초 당진시, 예산군은 산업단지에 별도의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했으나 예산중복투자 방지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도가 주체가 되어 통합 관리사업을 구상,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과정에서 ▲관로 통합 설계로 예산 126억 원 절감 ▲관로 간 비상연계망 구축으로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충남도-당진시-예산군-한국수자원공사 협력체계 구축 ▲도가 사업 주체로서 시

군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하균 도 경제산업실장은 “충남도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구상하고 시·군과 협력해 추진한 점에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었다”라고 “앞으로도 도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통합·조정 역할을 수행해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이지옹 기자



## ‘벽화 그리기’로 학교 담장 새 단장

## 조치원여중, 올해 상반기 공동벽화 그리기 추진

조치원여자중학교 교장 구지일, 이하 조치원여중의 어둡고 칙칙한 회색 빛 콘크리트 담장이 형형색색 학생들의 꿈으로 가득 물들었다.

조치원여중의 이진남 미술교사는 중심으로 한 학생 미술 동아리가 올해 상반기 동안 공동벽화 그림을 추진한 결과다.

‘꿈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공동벽화 프로젝트는 학업스트레스 해소와 학우 간 협동심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동아리인 ‘미남미녀4’와 토요 만화 애니메이션 반 학생들이 주도했다.

100m에 달하는 연결 벽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들은 현재의 행복한 본인들의 모습과 앞으로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꿈들을 인물, 풍경, 정물 등을 빗대 다양하게 담아냈다.

이번 벽화 그리기를 지도한 이진남 교사는 “처음에는 단순히 환경 미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점차 참여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흥미와 소양이 높아졌다. 그리고 요즘에는 벽화를 보기 위해 학교를 찾는 지역주민들도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9월 11일 당선작을 발표하며, 9월 16일 세종시문화예술회관과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학교 폭력예방을 주제로 한 K-POP뮤지컬 ‘친구 맞니?’ 공연 때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j1388.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44-867-2000)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정환기자

## 2016년 지방재정법 개정

## 홍성군 예산편성 실무교육

홍성군은 27일 군청 대강당에서 예산담당자 등 120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개정사항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이 강화되었으며 성인지 예산편성 및 주민참여 예산 운영 등 상세한 설명을 통해 2016년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했다.

또한 2015회계년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 부로 단축됨에 따라 사고이월 요구 및 확정시기를 앞당겨 집행에 민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2016년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세종소방서 93% 공정률… 10월 준공

## 지방행정타운 개발 선도 등 정주여건 조성 탄력 전망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1·5생활권(세종시 어진동)에 세종소방서 건립공사가 93%의 공정률을 기록,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현재 및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로 안전한 행복도시 세종을 구현할 세종소방서는 종사원비 154억 원을 투입해 5만m<sup>2</sup>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4,365m<sup>2</sup>) 규모로 건립된다.

세종소방서가 준공되면 세종교육청(2014년 말), 세종시청(2015년 7월)의 개청과 함께 지방행정타운 개발을 선도하는 등 정주여건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복청은 감수록 고종화되는 건축물과 소방차의 크기가 대형화되

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차의 높이를 8.7m로 설치, 기존 소방서보다 최소 2m 이상을 높이는 등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을 획득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운영기관 세종소방서, 외부전문가 등

## 황새 방사 행사준비 도로변 점검

## 예산군, 3개 구간 약 600kg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실시

예산군은 대홍면과 신양면이 9월3일 황새 방사 행사를 앞두고 행사장 주변 예초작업 및 쓰레기 수거를 실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군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홍면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진희) 회원 10명이 주축이 돼 주요 도로변 5개 구간에 대한 예초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대홍면사무소 직원과 노인회(회장 김백근) 회원 등 25명은 해당로와 예당 관광로, 협제 고개로 구간 등 3개 구간에서 약 600kg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밑그림 나왔다

## 조직위 출범 ‘국제행사 승인’ 박차

또한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주제와 콘셉트, 프로그램 등 밑그림이 나왔다.

도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협승육 정부부지사 주재로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본계획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고려인삼의 세계 브랜드화를 위해 이번 엑스포와 연계해 세계인삼도시연맹 결성 및 코엑스 분과위원회 개최 등 인삼 관련 국제회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협승우 도정부부지사와 김복만 충남도의원(금산), 김시령 금산부군수, 박범인 도 정책특별보좌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그간 연구용역에 대해 ▲국제행사당성 도출 ▲주제관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킬러콘텐츠 및 외국인 유치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특히 산학협력단은 3회째를 맞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국제행사로서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 기존 수심·홍삼 중심에서 미용·제약·식품 등 멀티샵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인삼 관련 전문엑스포로 육성하기 위해 규모 및 연출의 대형화, 국내·외 교류장 출·전 세대를 이루는 트렌드 선도 방안 등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내포=이지옹기자



## 예산군·광명시, 지역특산품·관광상품 접목 특화발전 기대

## 농업·관광산업 상생 업무 협약 체결

예산군과 광명시가 지난 26일 경기도 광명동굴 내 와인 레스토랑에서 협약을 보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광명시와 예산군이 상호 발전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환영사에서 “광명동굴은 괴짜 새우젓과 광명문화에서 세계인이 주목하는 관광명소로 변신에 성공하는 등 (자 산업의 모범사례자) 창조경제의 신실”이라며 “예산군의 농업과 관광산업이 상생 관계로 발전하기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에 소재한 광명동굴은 수도권의 유일한 동굴 관광지로 총연장 7.8km, 34만 2000m<sup>2</sup>의 공간에 동굴 예술의 전당, 빛의 공간, 동굴 아쿠아 월드 등 다양한 관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광명동굴은 약 100억원을 투입해 2015년도 4월 지금의 태마파크 동굴로 탄생하게 됐으며 평일 2500명, 주말 1만5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4개월 만에 유료관람객 50만명을 돌파하는 등 변신에 성공해 광명동굴의 콘텐츠와 지방의 특산품과 접목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광명동굴 관계자는 “이곳 광명동굴에서는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생산된 100여종의 외인이 전시 판매되고 있으며 그 중 예산사과와 외인은 품질이 우수하고 맛과 향이 뛰어나 외인 마니아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횡성=이지옹기자

횡성군 군수는 “이곳 와인 동굴

지와 협력업체를 완료했다.

면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아랫부지 첫걸음으로 역사에 기록될 광명동굴을 보기 위해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 면민 모두가 합심해 환경 정비에 나섰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군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황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군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동정

## 새마을지도자대회



유기준 아산시의회 의장=28일 오전 10시30분 신정호에서 열리는 아산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

## 민원상담관 정례보고회



한상기 태안군수 = 28일 오전 10시 40분 군수실에서 열리는 민원상담관 정례보고회에 참석

##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



이석화 청양군수 = 28일 오전 11시 청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26회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에 참석.

## 전출직원 이임식



현재구 아산교육장=28일 오전 10시30분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회 초등학력인정 출입식에 참석, 오후 2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9월 1일자 전출직원 이임식에 참석.

##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



김은자 청양교육장=28일 오전 11시 청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청양군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에 참석, 16시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임식에 참석.

## 태안군 군민중심 행정 조성 총력

## 전원관찰제 강화하고 조직 유연성 높여 변화와 수요에 적극 대처키로



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조직을 만들어 군민 행복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원관찰제는 공무원의 출퇴근 또는 출장 시 군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구석구석 관찰해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공직자가 먼저 지방적으로 불편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대대적으로 시행 중인 군 특수 시책이다.

태안군은 향후 전원관찰제를 더욱 강화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운 신고 건에 대한 '중간 회신제'를 도입, 처리과정을 신고 공직자에게 통지해 처리기간 단축과 신고 건수 증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민들이 전원관찰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순환하는 제도 명칭의 변경을 추진하고,

신고 공직자가 스스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공직자들의 군정 참여 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 유연성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군은 군정홍보팀을 신설해 군민 소통 및 군정홍보를 위한 SNS홍보 마케팅 등 군정홍보를 일원화하고 신도구 관리팀 신설로 대표적 생태체험 관광기반 조성 및 업무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충남도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조직의 첨개 방지와 공직사회와의 안주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그동안 성과관리팀과 전략팀 등 10개의 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민원 상담관과 귀농귀촌팀, 건강검진팀 등 군민 중심 행정 서비스 조직을 구성한 데 이어 행정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홍보정책관과 학예연구사

## 우리/동네



도고면, 석당리 경로당 개관식 아산시 도고면(면장 곽홍근) 석당리 경로당이 지난 26일 개관식을 갖고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을 시작했다. 시 보조금 1억6천6백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 착공한 석당리 경로당은 대지 575㎡에 140㎡ 규모로 건축됐다.

##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당진시, 과태료 3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영치 실시

당진시가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미필),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과태료체납자 차량에 대해 지난 28일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이번 당진시의 번포판 영치활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은 체납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시는 '차량 탑재형 카메라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 시스템을 활용 지역을 순회하면서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영치증을 지참하고 시 교통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해야 등록 번호판을 회수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번호판영치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과 함께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8월 현재 40여대의 차량에 농축장 발송 및 6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 34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추석명절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당진시, 9월 한달간 부정유통행위 근절 위해 단속 실시

당진시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9월 한달간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시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특산물 원

산지 표시 단속은 추석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여부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표시 적발 등을 통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생산 능력을 보호하는데 그 목

적을 두고 있다.

단속 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 슈퍼, 전통시장, 도매상, 공공업체 등 농산물 취급업소이며, 농산물 628개 품목(국산 205, 수입 161, 가공품 262)에 대해 원산지표시와 관련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 서류조사도 병행해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당진=최근수기자

속을 시행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부정유통을 조기에 극복시키고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제수 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하고, 미 표시나 허위표시를 발견했을 때에는 시당국 부서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산후케어 매니저 양성과정 수료



청양군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연계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운영한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훈련 '산후케어매니저 양성과정' 수료식이 27일 오전 청양부지회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달 14일부터 개강해 총 14일간 112시간 운영된 이번 과정에는 모두 15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11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이석화 청양군수는 "이번 산후케어매니저 양성과정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연계와

저출산 대책 마련의 두 가지 기대효과가 있다"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갖고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지역 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의 부재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출산친화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후케어매니저는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정보제공, 기시활동지원원, 정서지원원 등 산후조리를 돋는 역할을 한다.

청양=정상범기자



## 모유먹는 건강한 아기를 찾아라

## 청양군,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열어

청양군이 평생 건강의 초석이 되는 모유 수유의 중요성과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개최한 2015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서 4명의 건강한 아기가 선발됐다.

지난 26일 군 보건의료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청양에 주소를 둔 생후 4~6개월 이기 20명이 참가했다.

이날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및 간호대학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들은 신체발달, 행동발달, 건강검진, 모아 애착도, 가산점(자녀,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했다.

대회결과 ▲금상 청양읍 한지연 ▲은상 청양읍 인자원 ▲동상 남양면 권지현 ▲부문상 청양읍 이기훈 등 4명의 아기가 건강한 모유 수유아로 선정됐다.

또한 선정된 4명의 아기 가운데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에게는 내달 17일 아산에서 열리는 제1회 충남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군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속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 아산시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아산시는 관내 공중위생사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내달부터 연말까지 관내 공중위생사업소 중 이용업, 미용업 총 655개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방법은 시 공무원과 평생 위생사업소 관계자 4명이 1인당 80점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80점 미만은 전문가 1인당 80점으로 평가된다. 평가 결과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는 녹색등급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사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 아산시 음봉면 '사랑의 김장 나누기' 배추모 심기



아산시 음봉면 새마을 남·녀지도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6일(수) 아산온천에 조성된 덧밭에서 배추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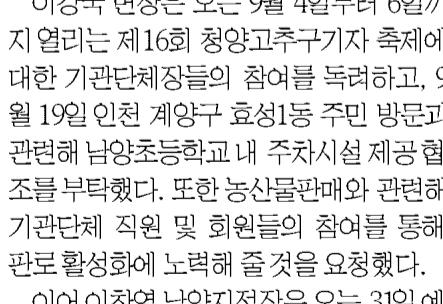
오는 가을 실시 예정인 '사랑의 김장 담그기'에 쓰일 배추와 무를 심은 것으로 새마을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30여 명이 참여해 2천여 포기를 식재했다.

정주왕 음봉면장은 "아직 더운 날씨에도 사랑 나눔을 실천하시는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더욱 활동할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태안군 노년층 일자리 확대 추진

## ㈔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태안시니어클럽 위·수탁 협약식



태안군이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지역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종력을 기울인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군수실에서 한상기 군수와 (사)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이하 노인회) 김동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노인회 간 태안시니어클럽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니어클럽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발굴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창출을 돋는 민간 주도 지역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군에서는 내달 1일 태안읍 동문리에 문을 열 예정이다.

군은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년층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태안군 노년층 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일자리를 확장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군수는 "노년층의 사회적 경험



에 따라 태안시니어클럽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난달 1일 노인회를 위탁사업자로 최종 선정했으며, 군과 노인회는 전문 인력과 사업단을 구성해 공익활동과 취업·창업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군과 노인회는 협약에 앞서 지난 25일 충남도 내 3개 지자체의 시니어클럽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한군수의 각별한 관심 속에 사업 발굴과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자리 사업이 정해지는 대로 참여자를 모집해 사업 실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 향적산 등산로 정비사업 본격 추진

계룡시, 등산객 안전과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틀바꿈

계룡시(시장 최홍목)는 주민들의 쉼터이자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는 향적산 등산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해발 574m의 향적산은 계룡산을 향해 웅쪽으로 연천봉 농산, 오른쪽으로는 천황봉 농산에 장관을 이루는 등 계룡산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산으로 유명하다.

시는 등산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1억 3000만 원을 들여 오는 10월 말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비구간은 장군암, 훨기장, 대피소 구간이며, 등산로 계단과 주변에 목재로 프렌즈와 철재난간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생태계 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등산로 구간에 야자베트를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미끄럼 방지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이율라 이번 사업으로 등산객의 안전 여행을 확보하는 한편 깨끗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를 통해 산을 좋아하는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친화적이며 안전하게 이를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편안한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여 고도 이미지 찾기 주민설명회

사업 추진배경·세부지원조건·주민 질의응답 시간 가져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25일 문화재청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까지 진행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부여 주민협의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여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부여 고도보존육성지구 내에서 고도 역사문화도시에 걸맞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국비를 포함하여 114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개축·재건축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추진배경과 세부 지원조건, 주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번에 추진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길 바라며 한옥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세부지원조건과 같은 규정 등에 대해 많이 흥보해 달라고"고 말했다.

관계자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도 보존육성지구 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여=이정복기자



## 서천군 복지도우미 역량강화 교육

서천군은 지난 26일 오후 3시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읍·면 복지도우미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안전망 활성화를 위한 복지도우미 위촉식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새롭게 복지도우미로 위촉된 25명 중 10명이 대표로 참석하여 위촉장을 받았으며 혜전대학교 이용환 교수의 '복지도우미로서의 가치성장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노비래 서천군수는 위촉식을 통해 읍·면 복지도우미의 노력과 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이웃이 이웃을 돋는 인적안전망 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2012년 5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빌갈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등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 단위 인적 안전망 강화하기 위해 각 마을 이장에게 복지관련 임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복지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읍·면 316명이 복지도우미로 활동 중에 있다.

서천=김태선기자

## '귀농·귀촌 1번지' 논산으로 오세요

## 일자리 창출형 귀농 1번지로 급부상… 귀농귀촌 박람회서 '귀농·귀촌' 1번지 홍보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희망찬 내일의 새로운 터전, 대한민국 귀농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 임지 여건이 좋은 논산이 최근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도시민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시작으로 정착적인 내일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곳 논산.

논산은 평야지역으로 경지면적 1만9천ha로 자연재해가 많지 않은 곳으로 소득이 높은 경제작물을 재배 중이며 특히, 충청남도에서도 농가 호당 순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는 2012년 3월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귀농귀촌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현재 논산시 팔기 재배농가는 1,900여 농가로 연간 1,4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논산시 농업분야총생산액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2010년 팔기재배 면적은 최근 새롭게 팔기를 재배하고자 하는 젊은 귀농인 증가로 전년 대비 15% 정도 (약 85ha) 증가할 것을 추산되고 있다.

귀농 인구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으며 팔기, 상추 등 실제적인 소득이 높은 작물을 재배코자 논산



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선호하는 작목은 역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팔기로 90% 이상이 팔기재배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시는 농업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부족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100회에 걸쳐 운영 중인 팔기 재배기술교육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과정이며, 귀농귀촌 팔기 분야, 기초분야 교육도 매년 200명 이 이수하고 있다.

오는 9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귀농귀촌 농가 130여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팔기기 초반, 농업기초반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고급기술 교육 과정인 농업대학 운영(팔기, 친환경, E-비지니스, 농식품기공)과 작목별 상설교육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교육은 많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로 야간에 교육을 실시해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

또, 시는 최근 귀농귀촌 정책을 확장하고자 팔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

팔기경쟁력제고설제배 140농가

/15년), 팔기고설육묘지원(110농가/15년), 시설팔기 에너지절감(50농가/15년) 수정벌 지원사업(850농가 전체/15년) 등 연간 100억 원 가량의

논산=한대수기자

보조금과 귀농정착지원금도 지원해 대한민국 귀농 1번지로 대도약 할 수 있는 토대를 꾸준히 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귀농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귀농귀촌지원 종합센터(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를 일원화하여 희망과 꿈을 가지고 찾아오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 유치, 정착지원, 재배기술 지원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이번 귀농귀촌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행복지 자체 1번지 논산 홍보 등 살기 좋은 논산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수한 임대능력을 가지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 거 공간 확보, 영농소득증가, 다양한 지원과 지역경제 및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I센터에서 개최하는 '2015 AFam Show 귀농귀촌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 유치 및 논산 농특산물 판촉 등 대한 민국 귀농·귀촌 1번지 논산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군이 이번에 새로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된 지역이다.

군은 이곳의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12일 교통안전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주정차금지선 정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후 고려정형외과에서 우리들내과 구간에 대해서는 6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천특화시장의 리모델링 공사와 대형주차장 공사로 단속을 유예하던 한솔관광사 입구에서 서천특화시장을 지나 서천계량소 까지 상습 교통혼잡지역 360m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군이 이번에 새로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된 지역이다.

군은 이곳의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12일 교통안전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주정차금지선 정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후 고려정형외과에서 우리들내과 구간에 대해서는 6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어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단속할 예정이다.

서천=김태선기자

## 전국 최고 "부여 양송이" 세계로 뻗어 나가

##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네덜란드 PTC+ 농업인 위탁 연수교육

부여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업강국 네델란드의 세계적인 농업기술 교육기관인 PTC+(Practical Training Center Plus)에서 부여 양송이 농업인 20명이 위탁 연수교육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2년도 부여군과 네델란드 흐스트안데마스시양도시

간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정 체결의 일환으로 2년간 토마토, 축산 재배사 환경재어시스템에 관한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되고, PTC+의 전문트레이너가 학생수를 최소화하여 10명씩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현장 밀착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네델란드 PTC+는 원예, 윤활, 낙농 등 농업 전반에 대한 및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농업 교육기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3만명 가까운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있다.

이번 위탁 연수교육은 양송이 퇴비 및 배지제조, 복토 제조공정, 재배사 환경재어시스템에 관한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되고, PTC+의 전문트레이너가 학생수를 최소화하여 10명씩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현장 밀착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연수를 계기로 PTC+의 전문트레이너를 부여로 초청, 연수생 양송이 농장에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해 관내 양송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주고 고품질 양송이 생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네델란드 PTC+ 농업 교육은 다년간 축적된 선진농업의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어 수료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네델란드 농업인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부여군 농업의 품질 향상 및 생산량 증가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 천안시 신안동 녹색커튼사업 에너지절약·아름다운 경관 연출



더위가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지만 한

낮의 불볕더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녹색ści물커튼을 조성,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천안시 신안동 주민센터(동장 김기훈)로 청사 외벽에는 노란 여주꽃, 푸른빛 나팔꽃들이 학조롭게 피어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을 반기고 있다.

신안동 주민센터는 녹색커튼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센터 앞 회단을 이용해 니파꽃을 5년째 식재해 오고 있다. 올해는 여주와 수세미

를 더해 다른 해보다 더 풍성한 녹색커튼을 만들었다.

녹색커튼은 한여울 무더운 사무실의 온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신부동 도심빌딩 속에서 싱그러움과 상쾌함을 전해주는 것이다. 요즘 주방 주방 달린 여주는 노랗게 익어 붉은 씨앗을 내뱉으며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주민센터를 찾는 한 주민은 "주민센터의 외벽에 활짝 편 나팔꽃과 여주꽃. 여기 저기 매달려 있는 여주를 보면 예쁘기도 하지만 도시 속에서 이렇게 자랄 수 있구나 하는 신기함도 느낀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 "여(女) 보 함께 걸어요" 여성친화도시 논산

## 함께만드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위한 과제발굴 워크숍 열려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여성의 힘으로 사회중심 도시구현을 위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시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발굴 워크숍'을 개

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위원 및 서포터즈, 관련기관 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논산시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사업을 발굴·선정하기 위해 서로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뜻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임우연 박사의 '여성친화도시 이해 및 우수사례 발굴' 지원��, 여성친화도시 이해 및 여성친화사업 우수사례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건강대학교 권경주교수, 한

산시 시의원, 충남도립대학교 곽영길 교수 등 4명의 컨설팅트레이너가 참여해 세부과제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실시했다.

함께 만들고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나눔나무 만들기와 함께 진행된 모둠별 토론회에서는 여성의 감성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이 이뤄졌다.

며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컨설팅과 함께 공동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 이뤄졌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17명의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지난 20일에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논산=한대수기자

## 추정

## 세미나



구본영 천안시장은 28일 오전 11시 제70주년 천안동남 남성의 용소방대 창설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시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6:00 2TV 아침	6:00 뉴스투데이	6:00 모닝와이드	6:00 정보의 발견 Foryou	6:10 명의
7:50 인간극장	8:00 KBS 아침뉴스스타임	7:50 이브의 사랑	6:30 CMB 라이프	6: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7:00 부릉! 부릉!
8:25 아침마당	9:00 그대로 푸른 날에	8:30 생방송 오늘아침	6:50 충청남도 영성소식	7:30 액자 광	7:30 액자 광
9:30 KBS 뉴스(수화방송)	9:40 시간을 달리는 TV	9:30 MBC 생활뉴스	7:00 은혜로운 말씀	8:00 명품 퍼퓸	8:00 명품 퍼퓸
10:00 무언이든 물어보세요	10:40 지구촌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7:30 모들라디오	8:10 미사와 곱	8: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0:55 별별가족	11:00 부탁해요, 엄마		8:30 어머님은 내 머느리	8:00 CMB 뉴스와이드	8:35 한글이 애호2
11:00 KBS 네트워크 특선 농촌 담당생활 월니파	11:20 MBC 생활스페셜		9:10 좋은아침	8:30 문학의 향기	9:05 활활타 빠삐에
11:55 바른한 고운말	12:50 인간극장 스페셜		10:00 SBS 뉴스	9:00 아구아 놀자	9:15 곤
12:00 KBS 뉴스 12	2:00 KBS 뉴스타임	12:50 TV동물농장	10:30 애인 있어요	9:30 행복동 '번지'	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0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2:10 생활의 발견	12:50 MBC 청오류스		10:00 열린 미디어 시청자 세상	10:30 최고의 요리비결
2:00 열린채널	3:05 후토스 미니미니	12:20 어왕이꽃		10:30 내나이가 어때서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2:30 제27회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대회	3:30 영성앨범 산		12:00 SBS 12뉴스	11:00 보들라디오	11:10 다큐오늘
4:00 오늘의 경제	4:00 두리동실 끊어공항	2:30 똑? 똑? 키즈스쿨	12:50 TV동물농장	11:30 좌충우돌 블링볼링	12:00 정오스 정오스
4:1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4:30 누나누가 잘하나		1:00 SBS 12뉴스	12:00 쿠퇴스	12:10 EIF 2015 퍼블릭 어페어
5:00 KBS 뉴스 5(수화방송)	5:30 터닝메이트	2:30 똑? 똑? 키즈스쿨	1:30 앤솔러리	12:30 애빠는 요리사	14:00 EIF 2015 다큐개발 프로젝트
5:20 시사진단	6:00 브로ックス		3:00 SBS 뉴스	1:00 온풀시즌 5편	15:30 EIF 2015 시를 펴는 소년
6:00 6시 내고향	6:30 유작뱅크		3:10 SBS 걸쳐클럽	2:00 카친보스 17편	16:00 으르자차아이무
6:55 시청자컬럼'우리시는 세상	6:30 보택스	6:10 생방송 오늘자박	4:00 SBS 애니캐리리	3:00 굿뉴스	16:10 폴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이야기
7:00 KBS 뉴스	7:30 쪽방한 소비자 리포트	7:15 위대한 조깅자처	4: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3:30 열린미디어 시청자 세상	16:20 모피와 친구들 시즌2
7:30 쪽방한 소비자 리포트	7:50 오늘부터 사령해	7:55 MBC 뉴스데스크	5:00 SBS 뉴스와이드	4:00 섹션뉴스	16:30 그림을 그려요
8:25 가족을 지켜라	8:30 VJ 특공대	8:55 똑? 똑? 키즈스쿨	5:30 보들라디오	4:30 멍一方面是 피트	17:10 헬로 코코2
9:00 KBS 뉴스 9	9:30 나를 돌아봐	9:30 리얼스타리 눈	6:00 CMB 뉴스와이드	5:30 행복동 1번지	17:30 명팀정 피트
10:00 KBS 미래포럼	10:50 2015 KBS 드라마 스페셜 <그 형제의 여름>	10:00 세비퀴	6:30 좌충우돌 블링볼링	6:00 톡! 보니하니 1	18:00 톡! 보니하니 1
11:00 KBS 뉴스라인		11:15 나 혼자 산다	6:30 좌충우돌 블링볼링	6:30 CMB 뉴스와이드	18:05 앱스페이스 정글
11:40 생방송 심야론		11:25 불티는 청춘	7:00 내나이가 어때서	6:30 보들라디오	18:20 톡! 보니하니 2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시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6:00 숨터	6:00 MBC 뉴스투데이	6:00 토요특집 모닝와이드	6:00 정보의 발견 Foryou	6:00 최명풍 경
7:50 남북의 청	6:20 대구공감	7:30 MBC 월드리포트	6:30 CMB 라이프	6:30 문화 '사랑'	6:30 문화 '사랑'
8:3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7:10 생생정보 스페셜	8:00 경제매거진 M	6:50 혼다인 스릴링	7:00 마시와 곰	7:00 마시와 곰
9:30 KBS 뉴스	9:40 걸어서 세계속으로	8:55 휴먼다큐 사람에 좋다	7:30 열린미디어 시청자 세상	7:20 태요의 생생국장	7:30 열린미디어 시청자 세상
10:30 행복한 지도	10:20 영화가 좋다	9:50 진짜 사나이 스페셜	8:00 섹션뉴스	8:30 풍선 코끼리 브루노	8:30 풍선 코끼리 브루노
11:00 사랑의 가족	11:30 우리동네 예체능 스페셜	11:00 찾아라! 미있는 TV	8:30 아빠는 요리사	8:00 쿠코동 3	8:00 쿠코동 3
12:00 KBS 뉴스	12:20 별난미녀	12:00 MBC 뉴스	9:45 동상이몽 괜찮아~ ꜵ	9:00 아구아 놀자	9:00 아구아 놀자
12:10 국악한국미당	12:30 별난미녀	12:10 무한도전 스페셜	9:50 진짜 사나이 스페셜	9:30 행복동 1번지	9:30 행복동 1번지
1:00 동물의 왕국	1:30 개그 콘서트	1:40 밤을 걷는 선비	10:50 접속! 무비월드	10:00 열린미디어 시청자 세상	10:00 열린미디어 시청자 세상
1:50 아생길기	2:00 희토 2	3:05 슈퍼맨이 돌아왔다	12:00 SBS 뉴스	10:30 내나이가 어때서	10:30 내나이가 어때서
2:00 희토 2	2:15 놀지마! 경선줄 2	3:30 MBC 뉴스	12:10 미세스 킴	11:00 보들라디오	11:00 보들라디오
2:30 아리아이야기 2	3:45 나를 돌아봐 스페셜	3:40 쇼! 음악중심	12:20 캐스팅 킴	11:30 좌충우돌 블링볼링	12:00 퍼블릭 어페어!
3:00 세계의 스페셜	4:45 나를 돌아봐 스페셜	4:50 우리결혼했어요	1:00 백색도시 6편	12:00 백색도시 5편	12:00 백색도시 5편
3:15 한국인의 법상	5:00 KBS 뉴스(수화방송)	5:00 우아한 미니	2:30 런닝맨	1:00 백색도시 6편	1:00 백색도시 6편
4:10 역사처럼 그날	5:10 청년취업 프로젝트 내일을 부탁해	5:10 몸이 좋았어요	3:40 SBS 뉴스	2:00 아구아 놀자	2:00 아구아 놀자
5:00 KBS 뉴스(수화방송)	6:05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6:05 우리결혼했어요	3:50 애인 있어요	3:00 섹션뉴스	3:00 섹션뉴스
5:10 청년취업 프로젝트 내일을 부탁해	6:25 무한도전	6:25 우아한 미니	4:00 보들라디오	3:30 열린미디어 시청자 세상	3:30 열린미디어 시청자 세상
6:00 동행		6:25 저녁집에 온다	4:30 문학의 향기	4:00 보들라디오	4:00 보들라디오
7:00 KBS 뉴스	7:55 부탁해요, 엄마	7:55 MBC 뉴스데스크	5:00 대구비비	5:00 아구아 놀자	5:00 아구아 놀자
7:10 대구공감		8:45 어자를 울려	6:25 질주본능 더레이서	7:00 아빠는 요리사	7:00 아빠는 요리사
8:00 이어령의 백년서재	9:15 연예가 중계	9:15 연예가 중계	6:25 질주본능 더레이서	7:30 내나이가 어때서	7:30 내나이가 어때서
9:00 KBS 뉴스 9	9:40 KBSS 미래포럼	10:00 여왕의 꽃	8:00 SBS 뉴스	8:00 아구아 놀자	8:00 아구아 놀자
10:35 글로벌 정보소 세 계인	11:30 인기의 조건 3-도시농부	11:15 그것이 알고 싶다	8:45 동상이몽 괜찮아~ ꜵ	8:30 섹션뉴스	8:30 섹션뉴스
11:45 콘서트 7080		11:15 마이리틀텔레비전	9:00 아구아 놀자	9:30 보들라디오	9:30 보들라디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시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	6:00 아생일기	6:20 시장여행 그땐 그랬지	6:00 SBS 뉴스	6:00 정보의 발견 Foryou	6:00 성공대기 기능 한국인
6:10 글로벌 정보소 세 계인	6:10 생생정보 스페셜	7:00 MBC 뉴스	6:10 생활의 달인 스페셜	6:30 CMB 라이프	6:30 장수의 비밀
7:05 TV 회고록 올림	7:10 시탁코 이슈를 말한다	7:10 시탁코 이슈를 말한다	7:20 일요특선 아내나이	7:00 문학의 향기	7:00 문학의 향기
8:00 KBS 뉴스	8:10 일요진단	8:00 해피타임!	8:2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	7:30 좌충우돌 블링볼링	7:30 바보임상의 파오파오
9:00 우리말 거루기	9:55 이웃집 찰스	9:15 복면가왕 스페셜	8:30 죽어도 싫어?	8:00 섹션뉴스	7:20 으르자차아이무
10:55 특별 생방송 사랑하라 대한민국	10:35 출발 드림팀 시즌2	10:45 신비한TV 프라이즈	9:30 TV 동물농장	8:30 대구 쿠코2	8:30 대구 쿠코2
11:55 숨터	11:45 해피투게더 스페셜	12:00 MBC 뉴스	10:50 정글의 법칙	9:30 보들라디오	9:30 보들라디오
12:00 KBS 뉴스	12:2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2:10 출발 비디오여행	11:00 광복기념 괜찮아~ ꜵ	10:00 힐링미디어 시청자 세상	10:00 힐링미디어 시청자 세상
1:20 스카우트 2	2:25 부탁해요, 엄마	1:15 학교	12:00 SBS 뉴스	10:30 내나이가 어때서	10:30 내나이가 어때서
2:10 KBS 슈퍼 클래식	3:35 MBC 뉴스	3:45 셕션TV 연예통신	12:10 애인 있어요	11:00 힐링미디어 시청자 세상	11:00 힐링미디어 시청자 세상
4:10 대구공감	4:50 해피선데이	4:50 일밤<복면가왕 / 진짜사나이>	10:00 애인 있어요	12:30 대구 쿠코2	12:30 대구 쿠코2
5:00 KBS 뉴스	5:10 KBS 음보즈맨		11:15 그것이 알고 싶다	12:00 힐링미디어 시청자 세상	12:00 힐링미디어 시청자 세상
5:10 KBS 음보즈맨	5:40 홀불의 왕국	4:50 일밤<복면가왕 / 진짜사나이>	<아빠를 부탁해 / 런닝맨>	12:30 대구 쿠코2	12:30 대구 쿠코2
6:00 황금의 펜타곤 시즌 3			5:00 보들라디오	13:00 문학의 향기	13:00 문학의 향기
7:00 KBS 뉴스	7:10 도전, 풀든벨	7:55 부탁해요, 엄마	5:30 내나이가 어때서	13:30 힐링미디어 시청자 세상	



**충남대,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 현판식** 충남대 산학협력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대학본부별관 3층에서 대학창의적자산 실용화지원(BRIDGE)사업 주관사업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충남대 산학협력단이며 건양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4개 참여대학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전·충청권 창의적자산 실용화센터를 설립했다.



**유성구, 행복 예산학교 개최** 유성구는 27일 구청 대강당에서 목원대학교 권선필 교수를 초청해 주민참여예산 행복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에는 허대정 유성구청장과 지역주민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청렴윤리위원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지사장 이현복)는 27일 지사장실에서 지사청렴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현복 지사는 8월 청렴윤리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패없는 청렴한 지사를 만들기 위하여 앞장서 줄것”과 “인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해없는 인전관리 우수지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메인비즈협회와 노란우산공제 업무제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오른쪽)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메인비즈협회(회장 박철구, 왼쪽)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행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총연맹 서구지회 도마1동분회경로당 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 도마1동분회 박상희 회장과 회원들은 27일 도마1동 관내 혜성타운경로당에서 김영문 회장과 이광복 서구의회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렉크레이션 활동을 펼치고 먹과 과일을 준비해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 경로호친사상을 실천,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기 기원했다.

## 보령항 제2부두 석탄하역설비 화재발생 가정하여 진압훈련 실시

### 보령화력본부, 보령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본부장 유성종)는 26일 오후 2시부터 보령항 제2부두에서 보령소방서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소방훈련은 보령화력본부 기술지원실 주관으로 안전점검, 협력업체인 주한전, 한전산업개발, 석탄산업 등 총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8월 12일 중국 텐진항 국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위험물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충남 소방본부가 대형재난 예방 및 유사사고 방지 차원에서 보령화력본부로 요청해 실시하게 됐다.

이날 훈련에 앞서 보령소방서



는 보령항 제1, 2부두에 대한 위험물 시설 소방검사를 실시했다. 훈련은 제2부두에 설치된 석탄

소방서 출동, 화재진압 순으로 진행됐다.

통제반장을 맡은 훈련식 연료연소팀장은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자위소방대 각반에 수시로 임무를 부여하며, 효율적으로 화재진압을 지휘했다.

훈련 후 유성종 보령화력본부장은 강평에서 “현장 근무자의 신속한 화재신고와 초동조치, 소방서와의 유기적 협동으로 설비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화재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백낙종 보령소방서 화재대책과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관했다.

보령=이정복기자

### 목원대학교 유도팀

### 인도네시아 카포리 컵 오픈유도대회 우승



목원대학교 유도팀은 지난 20부터 23일까지 글리빠 가든에 위치한 파데포칸 체육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카포리 컵 오픈 국제유도대회에 출전하여 단체전 우승을 달성했다.

또 이번 대회 개인전 경기에 출전한 정현광(-73kg급), 강민성(-81kg급), 정동식(-100kg급)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여자부 강주희(-48kg급) 선수와 주승희(+70kg급)가 은메달을, 남자부 최민호(-66kg) 정현광(-73kg) 정운성(-90kg)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어 출전선수 전원이 메달

을 획득했다.

한편 목원대학교 유도부는 1주일간 인도네시아 코파수스(특전사체육부와 함께 전국체전을 앞두고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올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도부 강병길감독은 “해외까지 나와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남은 기간 열심히 훈련했다”며 “전국체전에서 목원대학교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선기자

을 획득했다.

한편 목원대학교 유도부는 1주일간 인도네시아 코파수스(특전사체육부와 함께 전국체전을 앞두고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올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도부 강병길감독은 “해외까지

나와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자

랑스럽고 감사하다며 남은 기간 열

심히 훈련했다”며 “전국체전에서 목

원대학교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일 제일미곡종합처리장, 백미 이웃 전달

#### 남일면 민관협의체와 사랑 나눔 협약·쌀과 보리쌀 30포 전달

남일면 제일미곡종합처리장(대표 곽영우)은 남일면 민관협의체와 사랑 나눔 협약을 맺고 쌀과 보리쌀 30포를 전달했다.

곽 대표는 2006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40포(10kg)를 기증하는 것을 계기로 많은 경로당에 전자제품 기증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매년 지원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어 있다.

기증된 쌀과 보리쌀은 남일면 민관협의체에서 받았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할 예정이다. 불황과 경기 침체로 마음마저 차가워지는 현실에서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주위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금산=김남규 기자



### 청양군 정산면·장평면

#### 기관·단체 친선배구대회로 화합의 장

청양군 정산면(면장 정성희)은 지난 26일 정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역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제12회 기관·단체 친선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산면사무소, 이장협의회, 정산면체 연합 ▲정산초·중·고등학교 연합 ▲농업경영인회 ▲정산면민회,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연합 ▲의용소방대, 119인전센터 연합 ▲정산농협, 축협, 우체국 연합 ▲새마을회, 비르게 살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연합 등 총 7개 팀 18단체 150명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벌였다.

또한 이날 장평면체육회장 송석구도장장평초등학교에서 제2회 기관·단체 친선배구대회를 열고 19개 기관·단체의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합의 장을 펼쳤다.

정성희 면장은 개회식에서 “바쁘

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선수들께 감사드리며 젊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해 나날이 변화와 활력으로 발전해나가도록 정신인의 패기를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날 각 팀이 열띤 경쟁을 벌인 결과 ▲1위 농업경영인회 ▲2위 자율방범대 연합 ▲3위 학교연합이 차지했으며 농업경영인회 오미현 선수가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또한 이날 장평면체육회장 송석구도장장평초등학교에서 제2회 기관·단체 친선배구대회를 열고 19개 기관·단체의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합의 장을 펼쳤다.

청양=정상범기자



### ●동정 ● ● ●

#### 퇴임공무원 정부포상 전수식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 28일 오후 2시에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5년도 8월말 퇴임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전수식』에 참석.

### 충남농업기술원

#### 시설원예기술사 첫 배출



충남농업기술원 김양섭(사진) 농촌지도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제106회 기술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기술분야의 최고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시설원예기술사’는 시설원예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와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종합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농업분야의 최고 자격증이다.

김양섭 지도사는 지난 1997년 보령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직에 입문해 수경재배와 관비재배, 복합환경관리에 대한 과학영농 기술보급에 전념해왔다. 특히 김 지도사는 지난 2008년 도농업기술원으로 전임,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농업인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는 베테랑 지도사로, 이번 시설원예기술사 자격 취득을 통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도사는 “시설원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적 환경관리를 통한 고품질생산과 생력화가 필요하다”라며 “최근 대부도고 있는 정보통신과 농업이 결합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을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이지웅기자

#### 2017 FIFA U-20 천안유치기원

#### 천안시청 축구단팬 사인회



#### 2017 FIFA U-20 천안유치기원

#### 천안시청 축구단 팬 사인회

#### FIFA U-20 World Cup Korea 2017 Daegu Host City Organizing Committee

2017 FIFA U-20 천안시 유치기는 천안시청에서는 천안시와 (재)천안시청축구단(감독 당성중), 시축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사인회에서는 천안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모차를 탄 3살 어린이부터 청소년, 이집트, 미국 등 외국인들까지 약 천 여명이 사인회에 참여하여 천안시민들의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을 천안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염원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사인회였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다가오는 9월 3일 FIFA 실사에 있어 천안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2017년 U-20 월드컵을 천안에서 유치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환기자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 기고



박 인 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남북 합의, 일관된 대북정책 원칙 통했다

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창의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내걸었고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남북한 사이에 결국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강조해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북한을 괴롭히거나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힘이 아니라, 남과 북 모두에게 호혜적인 남북한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다.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확실한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결국 이러한 원칙이 관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협상 과정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지혜와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확성기'라는 우리 가 지난 전형적인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북한이 저렇게까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점은 의미하기까지 하다. 사회주의권의 물력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잘 버텨온다고 생각했던 북한이었는데, 그 이번에는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의외의 취약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고민하고 수립해야 할 정책개발의 윤곽은 더욱 자명해 지는데, 확성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 체제의 우월함과 자유민주주의 강점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파워의 수단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간파하였고, 앞으로의 단계들을 내다보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북한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 낼 수 있었다.

세 번째로, 금번 타결의 또 다른 성공요인으로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들 수 있다. 지난 8월 4일 북핵자체 사건 발생 이후 북한은 위기를 점진적으로 고조시키는 전형적인 전술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B-52, B-2 전략폭격기 등과 같은 '전략적 자산'을 공유한다는 안보협약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과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에게 있어서 '확성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우리 정부와의 단합이었던 것이다.

'8·24 고위급 협상' 타결은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긴 여정을 밟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확성기'라는 우리

때문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옵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신, 우리 사회의 창의성, 역동성, 개방성 등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프로젝트 접촉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공동보도문' 내용을 놓고서 일부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유감'이 과연 사과인가의 문제, '비정상적인 사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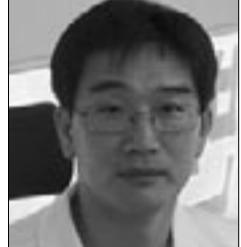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 온 북한 체제의 속성을 고려할 때, 유감은 사과의 또 다른 표현으로 봐도 무방하며, 비정상적인 사태란 불필요한 논란 없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북한은 확성기 중단이라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현상적인 목표에 집착했지만, 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의 몇 수를 더 내다보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교류협력 활성화에 더 큰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어느 한 측면과 관점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아닐 수 없고,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안보환경이라는 변수는 한반도적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힘들고 버거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이번 협상을 계기로 북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결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한후 당국자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준비단계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테이블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전략적 지혜와 국민적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건강 칼럼



나성 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건강검진센터 내과과장

##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

## 대장암의 증상

배변횟수의 변화, 변비, 설사, 변비와 설사의 반복,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흙색변을 보거나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진변감이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해 배변습관의 변화 말고도 복부불편감이 있다든지, 가스가 자주 찬다든지, 심한 복통이 있는 경우가 대장암 증상에 해당된다. 그 외 암의 일반적인 증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욕이 줄기도 하고, 체중이 빠지기도 하고, 자주 피곤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구역질이나 구토가 나기도 하고, 번혈이 생기기도 하고, 황달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위에 나열된 증상들만으로 대장암을 확진하기는 어렵다. 다른 병에서도 예를 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치매 등) 위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없는 초기 대장암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 대장내시경검사 어떻게 하나?

대장내시경검사는 검사 전 장내 소리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설사약을 먹고 장을 깨끗이 비우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설사약 자체가 양이 많고(4L) 맛이 없었기 때문에 검사 자체보다도 준비과정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을 줄이고 맛이 개선된 다양한 약제들이 출시되고 있어서 준비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

검사는 항문을 통해 대장의 끝부분까지 뷔브모양의 특수 내시경을

삽입하여 대장 내부를 관찰하고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용종 절제기구를 이용하여 용종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검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병변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까지도 가능한 검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시술 시간은 대략 10분~15분 정도 소요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삽입시간이 지연되거나 용종이 많은 경우는 검사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된다면?

대장내시경이나 대장조영술을 시행할 경우 대장에 흑, 용종, 또는 종양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 있는데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된다면 하여 모두 대장암으로 확진되는 것은 아니다. 용종은 대장에서 뛰어나온 모양을 지칭하는 것으로 용종의 종류에는 암 가능성이 적은 증식성용종, 염증성용종, 가성용종 등이 있고, 치후 대장암으로 변할 수 있는 선증성용종, 그리고 대장암이 있다. 대장의 용종을 제거할 경우 대장암으로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하여 선증을 제거할 경우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반대로 대장암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음주와 비만이 있다. 과한 음주의 경우에는 대장암 발생이 비음주자에 비하여 1.5배 증가 한다. 비만의 경우, 특히 복부비만의 경우에도 대장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암 발생률을 높이는 7가지로는 첫째,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 특히 짜은 고기(돼지고기, 소고기)와 기공 육류의 섭취, 둘째, 섬유질 및 칼슘, 비타민D의 부족, 셋째, 굽거나 튀기는 조리방식, 넷째, 육체적 활동량의 부족, 다섯째,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 여섯째, 대장에 생기는 사마귀의 일종인 선증성 풀립이 있는 경우, 일곱째, 유전적인 요인, 즉 친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 대장암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것

대장암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진 요소는 신체활동이다. 남자의 경우,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의 가능성성이 30%까

## 사설

## 10대 범죄 사회적 대책 시급하다

강도(3천131명), 방화(1천29명)가 뒤를 이었으며, 살인을 저지른 10대도 90명이나 됐다.

4년간 10대 강력 범죄자는 2011년 3천568명, 2012년 3천675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3년 3천484명, 작년 3천109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하지만 10대 강력 범죄 중 범적으로 저별반지 않은 연령인 족벌소년(만 10~14세)이 저지른 범죄는 점차 늘고 있다.

족벌소년의 강력범죄는 2011년 363건, 2012년 432건, 2013년 413건, 작년 479건으로 증가 추세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나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모두가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생각으로 주위를 보살피고 선도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한 때다. 10대는 국가 미래의 동량이기 때문이다.

## 가스요금 인상이 적절한가?

가스요금 인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불과 4개월 전에 가스요금을 인하한다고 큰소리를 해놓고 적자폭이 커서 불가피하게 인상해야한다는 궁색한 해명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대체적으로 홍보해왔다. 지난 4월 '도시가스요금 10.3%를 인하하겠다'고 도심 곳곳에 대대적으로 내걸렸던 새누리당의 홍보 현수막이 눈에 선하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국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비 절감, 민생체감 정책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다.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인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스공사가 지난 17일 정부에 '가스요금 9% 인상안'을 공식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요금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는 요금인상을 공식 결정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인상분이 바로 적용되게 된다.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의 주름살만 아래저어 늘어나는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인하를 대체적으로 선전해온 새누리당이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해명이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지금의 가스공사의 경영악화는 그동안의 방만 경영과 지난 정부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던 해외 지원 개발의 실패 등으로 누적된 것도 한몫했다는 지적은 그래서 더욱더 서민의 기금을 파고드는지도 모른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가스 요금 인상이 아니라 가스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경영정상화 계획부터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금선무이다. 서민경제에 크나큰 부담을 주는 이번 가스요금 인상 방침이 적절한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가스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

## 시의 향기



이채 작

## 어머니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듯 살아온 어머니  
평생을 두고도 다 못 갚을 은혜이건만  
마음은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 자식을 용서하세요

위를 보고 아래를 보지 못하면  
불편이 짜를 것이고  
높이를 알고 깊이를 알지 못하면  
덕을 쌓을 수 없다고 하셨지요

혼자 소유하는 부는 와롭고  
함께 나누는 부는 의롭다고 하셨지요  
행복 할수록, 풍요로울수록  
주변의 그늘을 돌보라고 하셨지요

이 한마디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난이 축복이고  
당신의 자식으로 살아감이 행복합니다

## 오늘의 소사

2000년 · 고대원 출신 국립현대미술관

2001년 · 전시의 유통 및 운영기획 미술관 10년 만에 문화체육관광부

2002년 · 한국전기통신공사 폐지

2006년 · 통신부, 2009년 우수부문 1부 문화체육관광부

2008년 · 특별 활동지원 베스트 창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비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편집국장 한대수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 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3회 한국효행청소년 효행사례 전국경진대회



## 취지

-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효(孝)**와 새로운 인성예절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국가발전 및 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핵심적인 정신문화를 부흥하고자 함  
-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웃어른 및 스승을 공경하고  
효행심을 유발 하여 효행을 실천한 우수한 사례를 발굴, 널리 보급하여 일반화하기 위함  
- 수상자들은 상급학교 진학 시 **효와 인성예절분야에 대한 스펙(부가점)**으로 활용 기대됨

## 참가자격

- 전국 초·중·고 대학생

## 원고 내용 및 규격

(내용) - 일상 생활속에서 꾸준한 **효행실천**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

- 경로효친 생활이 내면화되어 실천한 사례
- 기타 여러 상황에서도 효행을 실천하여 모범이 되는 사례

(원고분량) A4용지 2쪽 이내

(원고규격) 여백: 위-30, 아래-20, 왼쪽-25, 오른쪽-25,

글씨크기: 제목 15, 글씨 12,

글씨체: 바탕체

## 원고 접수

- 접수기간: 2014년 09.1(화) ~ 10월 2(금) 18:00시까지 도착

- 접수방법: 이메일, 인편, 팩스 혹은 우편접수

이메일 주소: seosh1236@hanmail.net / b3s1405@hanmail.net

rhee8165@hanmail.net / kean702@hanmail.net /

hih2000@hanmail.net

팩스번호: 042)536-9116, 042)536-9117

우편주소: 352-96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134-17 동명빌딩 301호

한국효행청소년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시상내용

각급 학교별 1편씩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단체상, 지도교사상

## 대회 및 시상식 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강당

## 기타

작품에 소속(학교, 학년, 반), 연락처가 누락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기재바람.

\* 수상자는 추후 주민번호, 주소 받음.

한국효행청소년단 카페 참조(<http://cafe.daum.net/KFPYF>)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람

대표전화: 042) 537 - 9115 / 042) 582-0057

사무총장: 송경숙 (010-9403-6848)

총재: 서성해 (010-2015-8969)

주관: 한국효행청소년단

후원: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주교육대학교, 대전광역시 서구청

장원교육, 교원시니어클럽, 효( )협동조합

**“효는 인성예절의 근본입니다”**

## 대회일정

원고접수: 2015. 09. 1(화) ~ 10. 2(금)

- 심사결과 발표: 2015. 10. 16(금)

- 사례발표 및 시상식: 2015. 11. 06(금), 15:00~16:30

\* 입선자는 개별 통보 및 다음카페; 한국효행청소년단 발표

\*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는 대회 당일 사례를 발표 할 수 있음.  
단, 부득이한 경우 본인이 작성한 동영상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